

「히브리대학교 성서 예레미야서」 본문 비평 장치의 성격

박동현*

1. 들어가는 말

20세기 후반 기독교 신학계에서 보통 써 오던 비평판 인쇄본 히브리어 성서로는 1929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킷텔(R. Kittel)이 여러 학자들과 함께 1937년에 다 엮어낸 「히브리어 성서」(*Biblia Hebraica*) 제3판(=BH³ 또는 BHK)과 그에 뒤이어 엘리거(K. Elliger)와 루돌프(W. Rudolph)가 주 편집자가 되어서 1968년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1976년에 다 엮어낸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서」(*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가 있다. 이 BHS는 히브리어 성서 제4판이라 부를 만하다. 아무튼 이 두 비평판 인쇄본 히브리어 성서가 주로 독일계 학자들에 의해 나오게 된 것과는 달리, 「히브리어 성서 제5판」(*Biblia Hebraica Quinta*=BHQ)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주선하여 2002년에 완간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다.¹⁾

이러한 기독교 학자들의 움직임과 나란히 유대교 학자들도 1940년대 알 램포 사본이 발견되면서부터 세운 '히브리 대학교 성서 계획'(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HUBP)을 따라 독자적인 입장에서 비평판 히브리어 성서를 「히브리대학교 성서」(*Hebrew University Bible*, 아래에서는 HUB로 줄여쓰기로 함)라는 이름 아래에 엮어내고 있다. 1965년에 이사야 2, 5, 11, 52장만 다룬 「이사야서 견본판」(*The Book of Isaiah. Sample Edition with Introduction*)을 낸데 이어 제1권(1:1-10:16), 제2권(10:17-44:28), 제3권(45:-66:)을 각각 1975, 1981, 1992년에 펴내고 1995년에 이사야서 전체를 한데 묶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에 대해서는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109-119쪽(제7장 히브리어 구약 BHQ)과 같은 지은이, "BHQ 하박국서 견본: 평가와 제안", 류호준 편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朱土 최의원 박사 신학교육 40년 기념 논문집」(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158-186쪽을 참고하라.

어 고셴곳슈타인(M.H.Goshen-Gottstein)을 편집자로 한 「히브리대학교 성서 이사야서」(*The Hebrew University Bible. The Book of Isaiah*, 아래에서는 HUBIs로 줄여쓰기로 함)를 내놓았다.²⁾ 그로부터 두 해 지난 뒤에 라빈(C.Rabin)과 탈몬(S.Talmon)과 토브(E.Tov)가 함께 엮은 「히브리대학교 성서 예레미야서」(*The Hebrew University Bible. The Book of Jeremiah*, 아래에서는 HUBJr로 줄여쓰기로 함)가 나왔는데³⁾, HUBIs의 경우로 미루어 보건대 HUBJr 편집 작업도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BHK와 BHS와 HUB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미 민영진이 히브리어 성서 이사야서 제1권을 가지고 간단히 다룬 바 있다.⁴⁾

이 글에서는 먼저 HUBJr 앞부분에 영어로 쓴 안내문(Introduction)의 내용을 HUBIs의 안내문 내용과 견주어 보면서⁵⁾ 간추려 소개함으로써 HUB '비평 장치'([Critical] Apparatus)⁶⁾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 쿠파란 예레미야 단편 사본 가운데 하나가 마소라 본문보다는 칠십인역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레미야 10장⁷⁾과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27장⁸⁾에서 각기 1-5절과 1-7절을 중심으로 HUB의 비평 장치를 BHS의 비평 장치와 견주어 보면서 그 내용을 해설해 보려고 한다⁹⁾.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HUBJr 비평 장치의

2) Moshe H. Goshen-Gottstein (ed.), *The Hebrew University Bible. The Book of Isaiah* (Jerusalem: The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95).

3) C. Rabin, S. Talmon, E. Tov (ed.), *The Hebrew University Bible. The Book of Jeremiah* (Jerusalem: The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97).

4) 민영진, 「國譯聖書研究」(서울: 성광문화사, 1984), 193-212쪽(第3部 I. 히브리語 聖書의 批評的 編輯).

5) HUBJr의 안내문은 고셴곳슈타인이 1965년 이사야서 견본판에 쓴 안내문을 그대로 HUBIs에 실은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두 안내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6) '비평 장치'라는 말보다는 '비평판'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7) 그 차이를 본문 비평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E.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Minneapolis: Fortress Press &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2), 325-326쪽과 줄고, "칠십인경 램9:21[22]-10:21에서 찾아본 애굽 전통의 몇 가지 경향", 앞의 주1에서 이끌어 쓴 책,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朱土 최의원 박사 신학 교육 40년 기념 논문집」, 187-209쪽을 참고하라.

8) 그 차이를 본문 비평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E.Tov, *Exegetical Notes on the Hebrew Vorlage of the LXX of Jeremiah 27* (34), *ZAW* 91(1979), 73-93쪽을 참고하라.

9) HUB의 비평 장치를 BHK의 비평 장치와 비교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1931년에 BHK의 예레미야서를 엮어 내놓은 루돌프

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할 것이다.¹⁰⁾

2. HUB 비평 장치의 일반적인 성격

2.1. HUB 각 쪽의 겉모습

HUB의 각 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본문과 비평 장치와 해설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윗 부분의 본문은 다시 알렘포 코텍스의 마소라 본문과 마소라 난외 주기와 장절수 표기로 이루어져 있다. 맨 위 난외에 있는 것이 대(大) 마소라이다. 소(小) 마소라는 바깥쪽 난외에, 곧 홀수 쪽의 경우에는 왼쪽 난외에, 짝수 쪽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장절수는 안쪽에, 곧 홀수 쪽의 경우에는 오른쪽 난외에, 짝수 쪽의 경우에는 왼쪽 난외에 적는다. 절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장수는 히브리어 자모로 표시한다.

가운데에 있는 비평 장치는 네 종류로 되어 있다. '첫째 비평 장치'(Apparatus I)에서는 고대의 일차 번역본들에서 볼 수 있는 이독법(異讀法, variant [reading])을 다루고, '둘째 비평 장치'(Apparatus II)에서는 유대 광야 사본들과 랍비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이독법을 다루고, '셋째 비평 장치'(Apparatus III)에서는 중세 히브리어 사본들에 나타나는 이독법을 다루고, '넷째 비평 장치'(Apparatus IV)에서는 철자법이나 모음 기호나 억양 기호의 차이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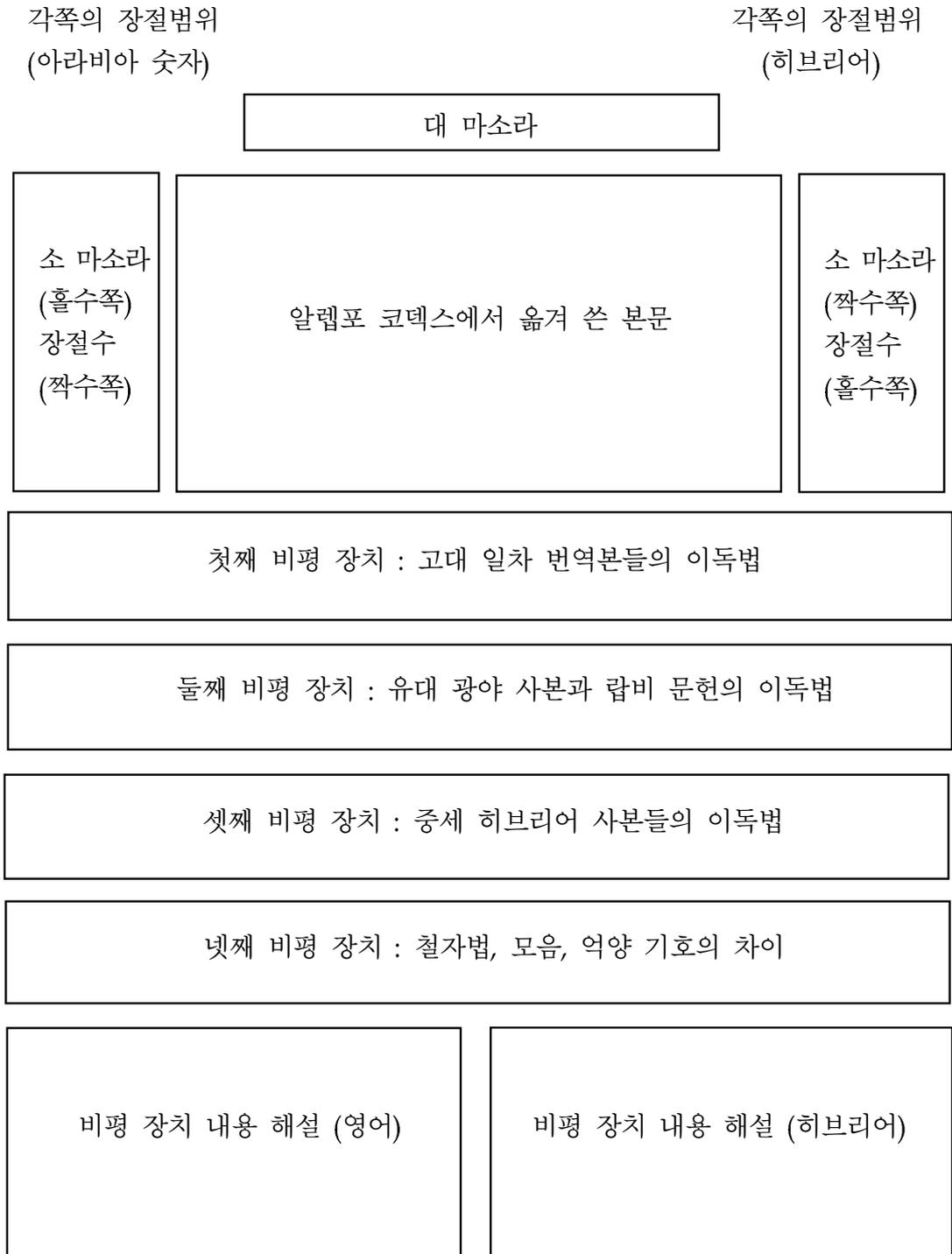
맨 아래에 있는 비평 장치에 대한 '해설 부분'(Notes)에서는 같은 내용을 왼쪽에는 영어로, 오른쪽에는 히브리어로 써 두었다.¹¹⁾

(W.Rudolph)가 1970년에는 또한 BHS의 예레미야서도 편집해 내놓았다. 두 비평 장치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는 하지만(앞의 주4에서 이끌어 쓴 민영진의 책, 『國譯聖書研究』, 204쪽 각주 14 참고), 그 둘을 잘 견주어 보면, 거의 40년에 걸쳐 예레미야서에 대해 연구해 온 한 학자가 그동안 발전한 예레미야서 연구의 결과를 비평판 히브리어 성서 편집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루돌프는 민수기의 경우에도 1935년에는 BHK를, 1972년에는 BHS를 엮어냈다.

10) 알렘포 코텍스의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에 대한 해설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그렇지만 HUBjr 10장 1-5절과 27장 1-7절의 비평 장치에 제시하는 다른 사본의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의 내용은 해설하기로 한다.

11) HUBIs, xxx쪽, 번호 51에서는 영어 해설 부분과 히브리어 해설 부분을 각각 '다섯째 비평판'(Apparatus V)과 '여섯째 비평판'(Apparatus VI)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HUBjr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러한 HUB 각 쪽의 겉모습을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 보면 아래와 같다.



쪽수 표시(히브리어)

2.2. 비평 장치의 근본 성격: 자료로 보는 히브리어 성서의 역사

HUB의 비평 장치를 통틀어 보면, 이는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단편 사본들과 칠십인역에서부터 나중에 여러 인쇄본 성서의 원형이 된 야콥 벤 하임의 랍비 성서(*Biblia Rabbinica*)¹²⁾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0년이라는 기간에 걸치는 히브리어 성서 본문의 역사를 압축하여 표시된 자료 모음으로 제시한다.¹³⁾

2.3. 비평 장치의 목적과 용도

BHK나 BHS의 편집자들과는 달리 HUB의 편집자들은 비평 장치에서 마소라 본문에 대한 수정 제안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을 HUBIs의 머리말에서부터 뚜렷이 한다.¹⁴⁾ 따라서 편집자들이 각 쪽 맨 아래 해설란에서 비평 장치에 기록된 이독법들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평가할 때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본문 비평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학자들의 마소라 본문 수정 제안이 설득력이 없는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순전히 주석상의 직관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정 은 하지 않는다.¹⁵⁾

이리하여 HUB의 비평 장치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려고 한다. HUB의 편집자들은 이른바 원 본문(Urtext) 재건을 비평판 히브리어 성서 편집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하여 HUB의 사용자는 그 비평 장치에 실린 여러 자료를 자기 방식대로 다시 배열하여 평가할 수 있다¹⁶⁾.

12) 랍비 성서는 이미 1516-17년에 처음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야콥 벤 하임의 성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제2 랍비 성서'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이것을 그냥 '랍비 성서'라고 부르기로 한다.

13) HUBjr, ix쪽의 번호 1과 xii쪽의 번호 17.

14) HUBIs, vii쪽.

15) HUBjr, x쪽의 번호 4.

16) HUBjr, ix쪽의 번호 2와 3.

2.4. 비평 장치 분리의 근거와 방식, 각 비평 장치의 성격

첫째 비평 장치가 번역본들을 다룬다면,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는 히브리어로 된 자료들을 다룬다. 번역본에서 거꾸로 히브리말로 옮겨서 얻은 이독법은 히브리어 자료에서 입증되지 않는 한 확실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material)' 이독법¹⁷⁾은 아무래도 옛 히브리어 자료보다는 고대 번역본들, 특히 칠십인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본들에 반영된 이독법을 첫째 비평 장치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¹⁸⁾

그런데 언어 분석과 옛 번역본들의 번역술 연구를 통해서 특히 칠십인역의 경우 실질적인 이독법의 존재에 대한 추정이 과장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증거 본문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본문 상의 명백한 차이에 대해 많은 경우에 여러가지로 해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본들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번역자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본문 상의 차이가 사실은 그 히브리어 대본(臺本, Vorlage)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마소라 본문이 된 것과 다른 히브리어 본문 전통이 여럿 있었다는 것은 추측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실은 옛 번역본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 성서의 각 책은 그 나름대로 연구해야 한다. 오경 본문의 역사는 사무엘서 본문의 역사와 같지 않고 사무엘서 본문의 역사는 예레미야서 본문의 역사와 같지 않고, 예레미야서 본문의 역사는 이사야 본문의 역사와 같지 않다. 칠십인역 예레미야서의 경우, 번역술이 오히려 자유스러운 이사야서와는 달리 그 번역이 상대적으로 축자적이어서 번역자가 히브리어 본문에 상당히 충실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비평 장치에 들어 있는 증거 본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¹⁹⁾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비추어 첫째 비평 장치와 나머지 세 가지 비평 장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비평 장치에서는 성서 본문 역사의 최초 단계를 다루고 어느 정도 본문의 변형과 변화에 대한 증거 본문을 마련해 주는 반면, 나머지 세 비평 장치(쿰란 단편 사본들을 다루는 둘째 비평 장치의 이독법들을 예외로 한다면)는 일반적으로 후기

17)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4.1.3.2를 보라.

18) HUBJr, x쪽의 번호 6과 7.

19) HUBJr, x쪽의 번호 8.

단계를 반영한다. 첫째 비평 장치에 수록된 자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은 맨 아래 해설란에 제시되어 있다. 편집자들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암시하려고 애썼고, 가장 건전하게 보이는 해결책을 주저 않고 암시했다.²⁰⁾

본문 관련 자료 전체를 검토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HUB 편집자들은 성전 파괴와 그 이후 시기, 곧 첫 세기 마지막 삼분의 일과 이 세기 첫 삼분의 일은 성서 본문 전승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분기선이라 잡는다. 곧 이때부터 '마소라 계열' 또는 '원 마소라 계열'이라 불리는 히브리어 본문 전통이 비록 최종적인 통일성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거의 완전히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마소라' 시대에 속한 성서 사본들에 나오지 않는 히브리어 자료들을 둘째 비평 장치에 제시한다.²¹⁾ 다만 랍비 문헌 자료는 잘 따져 보고 평가한 뒤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넣었다.²²⁾

첫 두 비평 장치에서는 다른 유형의 이독법들도 포함하는 반면에, 셋째 비평 장치에는 실제로 필사 과정에서 생긴 독법들과 언어적인 이독법들만 다룬다.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주후 800년 경 이후²³⁾의 성서 사본들을 독자적인 범주로 묶을 수 있으므로 이 사본들에 들어 있는 독법들은 별도의 비평 장치에 넣는다. 케니코트 시대 이후 대조된 수백의 사본 가운데서 극소수는 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독법들을 포함하고 있다.²⁴⁾

넷째 비평 장치에서 다루는 자료는 주로 셋째 비평 장치의 것이고, 단지 몇 경우에만 다른 비평 장치의 것을 참조한다. 같거나 비슷한 증거 자료가 두 가지 이상의 비평 장치에 나와서 서로 연결되기도 한다. 해설란은 주로 첫째 비평 장치에 대한 것이나 때로는 다른 비평 장치에 관련되기도 한다.²⁵⁾

20) HUBJr, x-xi쪽의 번호 9.

21) 앞의 주4에서 이끌어 쓴 민영진의 책, 「國譯聖書研究」, 208쪽에서 둘째 비평 장치는 '마소라 본문과 비마소라 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열거되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HUBJr, xi쪽의 번호 10-12.

23) 뒤에서는 이보다 더 자세히 '주후 9세기 후반 이후'라고도 한다(아래 4.5.1.1을 보라).

24) HUBJr, xi-xii쪽의 번호 13-14.

25) HUBJr, xii쪽의 번호 16과 xiii쪽의 번호 18.

3. HUBJr의 기본 본문과 마소라

3.1. 기본 본문인 알렘포 코덱스의 우월성

HUB가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를 포함하여 알렘포 코덱스를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제시하려고 한 알렘포 코덱스는 아론 벤 아쉐르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대교에서 지배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마소라 전통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서 현존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코덱스이다. 증거 자료들을 모아본 결과, 티베리아 '표준 본문'(textus receptus)에 따라 엮는 인쇄본 성서의 기본으로 쓰는 데에는 다른 어떤 사본도 이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²⁶⁾

3.2. 알렘포 코덱스 예레미야서의 본문과 HUBJr 본문의 차이

3.2.1. 알렘포 코덱스와 HUB 본문의 차이²⁷⁾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HUB는 알렘포 코덱스와 다르다.

(1) 코덱스에서는 본디 세 난(column)으로 적혀 있는 본문을 HUB에서는 각 쪽의 넓이를 따라 인쇄했다.

(2) 각 쪽의 일반적인 모양새로 볼 때, 열린 단락과 닫힌 단락의 차이를 옛 사본들에서 하는 방식, 곧 빈 칸을 두는 방식을 그대로 살릴 수가 없어서 열린 단락과 닫힌 단락을 각각 히브리어 자모 <페>²⁸⁾와 <사메크>로 표시하는 관행을 따랐다. 이 두 자모가 사본에 본디 들어 있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괄호 안에 두 자모를 넣었다([פ]과 [ס]로).

(3) 자모 위에 수평으로 짓는 획 <라페>²⁹⁾(פ나 פ의 경우처럼)는 연구 결과 체계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인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자모 위의 이 획은 뺐다.

26) HUBJr, xii쪽의 번호 15와 xiv쪽의 24-25.

27) HUBJr, xiv쪽의 번호 26.

28) 이 글에서는 외국어의 한글 음역을 <>안에 넣기로 한다.

29) <라페>는 자모 위에 수평으로 짓는 획인데 본디는 <다게쉬>와 <매팍>, 특히 <다게쉬 레네>에 반대되는 경우를 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W.Gesenius/ E.Kautzsch, *Hebräische Grammatik* (Hildesheim/ Zürich/ New York: Georg Olms Verlag, 1983=²⁸1909), §14e를 보라.

(4) 알렘포 코덱스의 서기관은 절의 마지막에 가끔 이중점(:)을 찍지 않고 한 절 끝에 <실록>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중점이 없으면 현대 독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한 점을 올려 찍어서(·) 이것이 사본의 <실록>과 관련시켜 덧붙인 점이라는 사실을 표시했다.

(5) 모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야>³⁰⁾를 서기관들이 찍었다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연구 결과 밝혀졌으므로 조판상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가야>는 모조리 모음 왼쪽에 인쇄했다.

(6) 알렘포 코덱스 예레미야서 본문에 들어 있는 명백한 잘못은 해설란에 밝혀 놓거나 그것을 고쳐서 본문에 적되 넷째 비평 장치에 대한 해설란에 그렇게 고친 사실을 밝혀 두었다.

3.2.2. 알렘포 코덱스 예레미야서에서 파손된 부분(렘29:9-31:25)

알렘포 코덱스 예레미야서의 몇 쪽은 부분적으로 찢어졌거나 온통 빠져 있다(29:9-31:25). 그리하여 이런 부분에 관한 한 HUBJr의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B19^a)을 따랐다. 이 부분과 또한 다른 곳에서도 알렘포 코덱스가 랍비 성서과 다른 점들은 랍비 샬롬 샤흐나 엘린의 주기(notations)에 기록되어 있었다. 거기 열거된 몇 가지 차이에 따라 레닌그라드 코덱스의 본문을 고쳐 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단락과 닫힌 단락에 관한 것들이다.³¹⁾

3.3. 알렘포 코덱스의 마소라 주기와 HUB의 마소라 주기³²⁾

알렘포 코덱스에서는 좁은 난에 본문을 적는 것과 잘 어울리게 소 마소라 주기가 여백에 수직으로 적혀 있지만, 인쇄본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본문 각 행의 마소라 동그라미 표시에 어울리게 수평으로 인쇄했다. 본문 한 줄에 속하는 마소라 주기가 술한 경우에는 소 마소라는 두 줄에 배열했다.

30) <가야>를 달리는 <페텍>이라고도 한다. 바로 앞에서 이끌어 쓴 Gesenius/Kautzsch의 책, §16c를 보라.

31) HUBJr, xv쪽의 번호 29.

32) HUBJr, xv쪽의 번호 28.

대 마소라는 각 쪽 맨 위에 두고, 알렘포 코텍스를 따라 각 주기 사이에 구분하는 표로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몇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 없이 마소라 주기가 나오거나 주기 없이 동그라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첫 경우에는 주기가 해당되는 낱말을 각주에 언급했고, 둘째 경우에는 마소라 주기가 없다는 것을 표시했다. 해독할 수 없거나 코텍스에 빠진 (이른테면 닳아 빠진 구석의) 마소라 주거나 그 부분은 가능한 경우에는 재건했고 그렇지 않으면 사각 괄호로써 표시했다.

대 마소라를 그대로 옮겨 적은 점에서 HUB는 대 마소라를 아예 뺀 BHK와 대 마소라를 따로 책으로 만들고 그 일련번호만 본문과 비평 장치 사이에 둔 BHS와는 다르다.

4. HUBJr의 네 가지 비평 장치와 해설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기 방식

4.1. 첫째 비평 장치

4.1.1. 예레미야서의 일차 번역본들과 그 기호

(1) 첫째 비평 장치에는 모든 일차 번역본들, 곧 히브리어에서 바로 옮긴 번역본들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독법 자료를 제시한다. 아랍어역까지 있는 이사야서와는 달리, 예레미야서의 경우에는 칠십인역과 탈군과 페쉬타 곧 시리아어역과 불가타의 이독법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 번역본들의 기호는 각각 **Ⲅ Ⲅ Ⲅ Ⲅ** 이고, BHK와 BHS에서 **ⲙ**으로 표시하던 마소라 본문은 **ⲃ**로 나타낸다.³³⁾

(2) 아퀼라역과 쉘마쿠스역과 데오도시안역과 헥사플라에 들지 않은 세 가지 헬라어 번역본들(=‘The Three’, 이른바 <퀸타>, <섹스타>, <셉티마>)³⁴⁾를 각각 가리키는 기호인 *α'σ'θ'γ* 다음에 증거 본문이 시리아어로 인용되면, 이는 시리아 헥사플라에서 온 것임을 뜻하고, 라틴어로 인용되면, 그것이 제롬에게서 온 것임을 뜻한다.³⁵⁾

33) HUBJr, xv-xvi쪽의 번호 30-31; HUBIs, xxii쪽의 번호 33-34.

34) D.C.Parker, "The Hexapla of Origen", ABD III(1992) 188-189쪽을 참고하라.

35) HUBJr, xix쪽의 각주 22.

4.1.2. 번역본 자료의 인용 방법³⁶⁾

(1) 인용 순서

번역본들에서 뽑은 자료들은 마소라 본문의 낱말 순서대로 인용한다.

(2) 절 수 표시

절 수는 굵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는 HUB의 절 구분을 가리킨다. 두 절 이상을 가리키거나 일련의 낱말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를 한 절이나 그보다 적은 수의 낱말을 가리키는 경우보다 앞세운다.

(3) 올림말 표시

한 올림말은 절의 처음인 경우를 빼고는 분리하는 표 ¶³⁷⁾로 앞의 올림말과 구별한다.

올림말은 한 쪽 사각 괄호(())로써, 이를테면 ׀로 번역본의 독법과 구별한다.

한 절에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여러 절에 관련되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한 낱말 또는 적은 수의 낱말에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여러 낱말 또는 많은 낱말에 관련되는 내용을 앞세운다. 한 절 전체에 관해 다룰 때는 절수를 올림말을 쓴다.

한 절에 자주 나오는 낱말이나 짧은 작은 아라비아 숫자를 올려 써서, 이를테면 ²אס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두 낱말 이상은 한 올림말로 인용하지 않는다. 셋 이상의 낱말로 된 올림말은 첫 낱말과 마지막 낱말만 적고 그 사이에 이음줄(-)을 쓴다. 연속되는 여러 낱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용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한다.

인용 부분의 모음 기호는 차이가 있는 부분에만 붙인다.

<크티브>와 <크레>는 번역본의 독법을 히브리어로 거꾸로 번역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포함시켰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형태는 사선(/)으로 구별하여 인용하는데 <크레> 다음에는 q를, <크티브> 다음에는 k를 써서 표시한다.

(4) 절 첫머리나 마지막에 덧붙은 것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으나 번역본의 절 첫머리에 나오는 것을 인용할 때는 init]로, 마소라 본문에는 없으나 번역본의 끝에 덧붙은 것은 fin]으로

36) HUBJr, xviii-xix쪽의 번호 39-44와 xxi쪽의 번호 50.

37) 혹 달린 부분이 아래 오른쪽에 와야 하는데, 이 글을 작성할 때 쓴 컴퓨터로는 그런 부호를 쓸 수 없어서 이후로 혹이 왼쪽 위에 달린 부호(¶)로 대체하기로 한다.

표시한다.

(5) 독법 표기

독법은 각 번역본의 기호 다음에 기록한다. 독법이 해당 번역본의 몇 증거 본문에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처럼, 그 자료의 기호를 괄호 안에 넣는다. Ⓣ의 전통 안에 있는 이독법을 반영하는 본문의 일부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다.

같은 올림말에 관련되는 여러 번역본의 독법은 어떤 번역본들이 한 가지 특수한 독법의 존재를 함께 증거할 경우를 빼고는 ⓉvⓉS의 고정된 순서로 각기 상응하는 서체로 인용한다. BHK와 BHS에서 라틴 자모로 음역해 적었던 ⓉS의 독법을 HUB에서는 각각 아랍어 자모와 시리아 자모³⁸⁾로 적는다.

(6) 두 번역본이 같은 독법을 증거할 때는 흔히 하나만(주로 Ⓣ)을 완전히 인용하고 다른 하나는 그저 =로, 거의 같은 증거 본문은 ~로 표시한다. 자명한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한 번역본을 완전히 인용한다.

(7) 같은 올림말에 관해 (거의) 같은 독법을 증거하는, 서로 다른 번역본들의 인용은 <세미 콜론>(;)으로 구별한다. 편집자들의 견해에 따를 때 그것들이 다른 독법들을 증거할 경우에는 수직선(|)으로 이들을 구별한다.

(8) 어떤 번역본이 현상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다른 번역본의 기호 다음 괄호 안에 언급되면, 이는 이 현상이 괄호에 언급된 번역본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지만 보기에 같은 현상이 실제로는 그 번역본의 다른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9) 첫째 비평 장치에 기록된 독법이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해당 항목의 오른쪽 위에 올려 표시를 하고, 그 설명은 넷째 비평 장치 아래에 영어와 히브리어의 두 가지 말로 된 해설란에 적는다.

4.1.3. 일차 번역본 이독법의 세 가지 종류와 기록 방식

(1) 기술적(technical) 이독법

이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차이로서 문법적이고 문장론적인 구조의 차이, 표현의 단순화, 문맥 조절 등으로 생기는 차이이다. 인칭, 수, 동사 형태의

38) 이 글에서는 HUBJr 해설란에서 하듯이, 시리아 자모를 히브리어 자모로 바꾸어 적기로 한다.

차이가 그런 보기인데, 이를 가리키기 위해 *per, num, verb*라는 줄인말을 쓴다. 이런 차이는 대부분 번역상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전해 내려온 히브리 본문과 다른 대본을 번역본이 반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³⁹⁾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에 상응하는 말이 번역본에 덧붙여 있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HUBIs에서는 선택적으로 제시했고, HUBJr에서는 ㉞의 경우에만 완전히 기록하되 그것이 번역술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일 때는 기호 ①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고 빠져 있을 경우에는 기호 >로 표시했는데, 이는 둘째로 말할 '실질적'인 차이에 속하게 된다. 쿠파란 사본에 <와우>가 덧붙었는지 빠졌는지는 둘째 비평 장치에 완전히 기록하고, 마소라 사본들 가운데서 <와우>의 유무와 관련되는 자료를 선택해서 셋째 비평 장치에 기록한다.⁴⁰⁾

(2) 실질적(material) 이독법

이는 앞에서 말한 유형의 차이를 넘어서서 본문에 덧붙인 것이나 뺀 것인 경우나 단어 순서 상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를 비평 장치에 기록하고 그에 관련된 설명은 맨 아래 해설 부분에서 한다. BHK나 BHS와는 달리 HUB에서는 번역본의 독법을 거꾸로 히브리말로 옮긴 것은 첫째 비평 장치에 적지 않고 맨 아래 해설 부분에 적는다. 그런 번역 가운데서 일부는 과거 학자들이 제안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HUB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들이다.⁴¹⁾

(3) 주석에서 비롯된 이독법

이는 히브리어 본문과 한 번역본의 차이가 의심할 여지 없이 번역상의 이탈이라는 주석적인 성질에서 비롯된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탈꿈에 나타나는 차이, 또 그보다 덜한 정도로는 칠십인역에 나타나는 차이에 해당된다. 이독법을 추론해낼 수 없는 주석적인 변화는 제외한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알맞게 거꾸로 번역할 말을 암시할 수 없는 독법을 반영할 수 있는 이독법은 기록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또 완전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비평 장치에 포함시켰다.⁴²⁾

39) HUBJr, xvi쪽의 번호 32.

40) HUBJr, xvi쪽의 번호 33.

41) HUBJr, xvi-xvii쪽의 번호 34.

42) HUBJr, xvii쪽의 번호 35.

4.1.4. 그 밖에 HUBJr의 첫째 비평 장치에 고유한 내용

(1)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본문의 장 배열상의 차이

25장13절 다음에는 칠십인역의 장 배열이 히브리어 본문 및 다른 여러 증거 자료의 경우와 다르다. 각 단위 본문의 첫머리(보통은 각 장 첫머리)에 각주에다 굵은 글자로 적어서 그 단위 본문의 칠십인역 자리를 표시했다(이를테면 33:1 각주에서 "ch 33=40⁶"). 병행 구절에 대한 표시도 굵은 글자로 했다(이를테면 8:10의 각주2)⁴³).

(2) 칠십인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음역상의 차이(이를테면 ירמיהו - Ιερემίας나 ירמיהו - Σεδεκίας)는 언급하지 않고, 불가타에서 ראצר/גוכוכר를 Nabuchodonosor로 음역한 따위도 언급하지 않는다.⁴⁴)

4.2. 해설란의 기록 내용과 방식⁴⁵)

4.2.1. 첫째 비평 장치 내용에 대한 해설

(1) 해설란에 적은 것은 대부분 첫째 비평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첫째 비평 장치에 적어 둔 번역본의 독법 가운데서 거꾸로 히브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된 바들을 아래 해설란에서는 입수 가능한 비교 증거 본문에 비추어서 개연성의 차례로 언급한다. 거꾸로 번역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경우에는 아무런 반론도 덧붙이지 않고 적는다. 때로는 거꾸로 번역한 제안에 등급을 매긴다. 제안된 이독법에 거의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여길 때는 'hardly'로, 어느 정도 의심스러우면서도 그럴 듯한 이독법을 제시한 경우에는 줄인말 'p'를 앞 세운다.

(3) 첫째 비평 장치와 관련하여 이독법에 대해 해설할 때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뜻을 알 수 있는 줄인말, 이를테면 exeg, struct 같은 줄인말을 많이 쓴다.

(4) 관련 사항을 표시할 때 cf는 절이나 문법, 언어 기타 여러 가지 현상을 가리킬 때 쓰고, vid는 참고 문헌이나 HUB의 다른 비평 장치를 가리킬 때 쓰면, e.g.는 번역본에서 거꾸로 히브리말로 번역하여 모음을 여러

43) HUBJr, xxi쪽의 번호 49.

44) HUBJr, xx-xxi쪽의 번호 47.

45) HUBJr, xvii쪽의 번호 38과 xviii-xix쪽의 번호 43과 45와 xxi쪽의 번호 51.

가지로 붙일 수 있을 경우에 그 가운데서 하나 또는 몇 가지를 말할 때 그 앞에 쓴다.

(5) 랍비 문헌에서 취한 자료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둘째 비평 장치에 서는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해설란에서 이끌어 쓸 수 있다.

(6) 이 해설란에서 시리아어는 히브리 글자로 바꾸어 적고, 가끔 아랍어를 가리킬 때는 이를 라틴 글자 이탤릭체와 히브리 글자로 적는다. 아람어 부분은 미리암 체로 적는다.

(7) 번역본에 나오는 독법을 더러는 영어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는 번역본의 특수한 이해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이런 번역은 홑 따옴표(') 사이에 넣는다.

4.2.2. 다른 종류의 해설과 참고 문헌 소개

(1)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나 마소라 주기에 대한 해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랍비 문헌과 마소라 사본에 기록된 유형의 이독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2) 문제를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경우에만 학자들의 글을 참고 문헌으로 소개한다.⁴⁶⁾

4.3. 여러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 쓰인 기호와 줄인말

4.3.1. HUB의 기호와 줄인말의 일반적인 특성

HUB에서는 주로 첫째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 여러 가지 기호와 줄인말을 쓰지만,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둘째, 셋째, 넷째 비평란에도 해당된다. BHK나 BHS와 견주어 볼 때 HUB의 기호와 줄인말은 근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뚜렷하게 다르다.

(1) 번역본 내부의 여러 가지 사본을 BHK와 BHS에서는 각기 독립적인 기호로 쓰지만, HUB에서는 한 번역본의 표준 본문과 그에서 벗어나는 이독의 둘로 크게 나누어 표시할 따름이다. 이를테면 칠십인역의 경우에, BHK와 BHS에서는 Ⓜ(BHS에서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괴팅엔 칠십인역을 가리키고, 아직 출간되지 않은 부분은 랄프스의 칠십인역을 뜻함) Ⓜ*(BHS

46) HUB]r, xiii쪽의 번호 22와 xvii쪽의 각주 14.

에서 말하는 칠십인역 추정 원본), G^A (칠십인역 알렉산드리아 사본), G^B (칠십인역 바티칸 사본), G^O (칠십인역 오리겐 교정본) 등 적어도 20가지 이상을 표시하지만, HUB에서는⁴⁷⁾ 예레미야서의 경우에 지글러가 엮은 괴팅엔 칠십인역⁴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평 장치에 이독법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이면 G 로 표시하고⁴⁹⁾, 적혀 있을 경우에는 지글러가 재건한 본문은 G^r 로⁵⁰⁾, 비평 장치에 적힌 이독법은 개별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G_{var} 로 표시한다.⁵¹⁾

(2) BHK나 BHS에서는 별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기술적인 차이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분류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HUB에서는 새로 여러 가지 기호나 줄인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을 제외하고 또 BHK나 BHS와 견주어 보아서 달라진 것들만 모아본다면 다음과 같다.⁵²⁾

4.3.2. 기호⁵³⁾

~	한 문장 전체 또는 부분을 이루는 낱말의 순서가 다르다는 표시
II III IV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에 관련 항목이 있다는 표시
← ⇒	번역본에서 거꾸로 번역한 독법, 또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무엇으로 발전했다'는 표시

47) HUBJr, xix-xx쪽의 번호 46.

48) J.Ziegler (ed.), *Ieremias, Baruch, Threni, Epistula Ieremiae*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Societatis Litterarum Göttingensis editum. Vol.XV)(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57).

49) 아래에서는 그냥 '칠십인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50) 아래에서는 '지글러의 칠십인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51) 아래에서는 '칠십인역의 이독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

52) BHK의 비평 장치에 쓰인 부호와 줄인말의 우리말 번역에 대해서는 문희석 편, 「구약원어참고서」(서울: 보이스사, 1973), 45-70쪽과 앞의 주4에서 이끌어 쓴 민영진의 책, 「國譯聖書研究」, 196-203쪽을 서로 견주어 보고, BHS의 경우에는 한동구, 「히브리어 성경(BHS) 용어사전 - 성경사본, 히브리어, 라틴어 용어와 약어 해설-」(서울: 도서출판 마이크로, 1998)을 W.R.Scott/H.P.Rüger, *A simplified Guide to BHS with An English Key to the Latin Words and Abbreviations and the Symbols of BHS* (Berkeley, Ca.: BIBAL Press, 1987) 35-85쪽과 견주어 보라.

53) HUBJr, xxi-xxiii쪽의 번호 52b)1)과 c).

u	번역본에서 문장론상으로 한 단위로 한데 묶어 읽어야 한다는 표시, 또는 h 의 연결형 억양 기호
^	번역본에서 한 문장의 부분 사이에서 쉼 다음 읽으라는 표시, 또는 h 의 분리형 억양 기호
✓	특정 문법 형태와 무관한 어근(語根)
≈	두 번역본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그 둘이 거의 같다는 표시
p, pReg	해설란에서 특별히 표시한 병행 구절
≡	알맞은 번역
!	여백의 길이나 사본의 독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
→	다른 변화도 반드시 있다는 표시
§	새 단락을 가리키는 빈 공간(둘째 비평 장치에 쓰임)
'	사본의 본디 독법(넷째 비평 장치에 쓰임, 둘째 비평 장치의 pm과 비슷함)
"	사본의 고친 독법(넷째 비평 장치에 쓰임, 둘째 비평 장치의 sm과 비슷함)
o	구조나 인칭이나 대명사 등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아주 분명해서 아무런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표시

4.3.3.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줄인 말⁵⁴⁾

abbrev	말줄임(abbreviat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차이
Acc ⁵⁵⁾	악카드어(Accadian)
anthropom	신인동형론(神人同型論, anthropomorphism)을 피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차이
app	여러 다른 비평 장치(appatuses)에 나오는 관련 항목
apt	번역이 보기와는 달리 알맞다는 표시
assim	낱말이나 형태의 동화(assimilation)
atten	낱말을 선택 상의 희석(attenuation), 곧 더 '약한' 말, 전문성이 덜한 말을 썼다는 표시
bis	같은 자료나 쪽 등에 두 번 나온다는 표시

54) HUB_{Jr}, xxii-xxiii쪽의 번호 52b)2)와 xxiv-xxviii쪽의 번호 54-55.

55) BHK에서는 acc 또는 akk로 줄여 썼다.

Can	가나안어(Canaanite) 또는 옛 가나안어(Ancient Canaanite)
condens	ㄹ에 길게, 특히 반복해서나 병행법으로 표현된 바를 짧게 줄여서 번역했다는 표시
conuig	<칼>/<피엘> 또는 <칼>/<히필> 등으로 동사 변화 (conjugation)의 차이
connect	절 또는 문장 연결(connection)의 차이
constr	명사의 연계형(construct form)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낱말
dem	지시(demonstrative) 대명사의 차이
det	(주로 ㄹ에서) 정관사(determinative particle)의 차이
diath	능동형 또는 수동형, 특히 부정(不定) 주어를 지닌 수동형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표시, 이는 또한 주어와 목적어의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diff	일정한 범위의 본문 안에서 번역본이 ㄹ와 아주 다르다 (different)는 표시
dissim	비슷하거나 같은 낱말을 일부러 피하려고 했다는 표시
ditt ⁵⁶⁾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
div	하나님(divinity) 이름을 덧붙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썼다는 표시(ㄹ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가리킨다)
Eg	이집트어(Egyptian)
equiv	어의론과 번역술의 차원에서 동등하다(equivalent)는 뜻
etym	특수한 어원(etymology)에 근거한 해석
evid	주로 'no evid', 곧 번역본의 언어학적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추정 이독법에 유리한 증거 본문(evidence)이 하나도 없다는 표시로나 'main evid', 곧 인쇄본의 본문이 중요하지 않는 독법(minor reading)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 쓰이는 표시로 나옴
ex	다른 구절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거나 빌어와서 생긴 차이
exeg	주석적인(exegetical) 변화
expans	(때때로 새로 병행 부분을 만들어서) 확장한(expanded) 번역
gloss ⁵⁷⁾	번역자(또는 필사자 등)의 해설이 본문에 들어온 것을 표시하는데, 때때로 중복(dupl)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56) 이를 BHK에서는 dittogr로, BHS에서는 dttg로 줄여 썼다.

57) BHK와 BHS에서는 gl로 줄여 썼다.

graph	히브리 자모의 비슷한 모습 때문에 생긴 변화
hapl ⁵⁸⁾	중자탈락(重字脫落, haplography/haplogy)
herm	미드라쉬 주석에 근거하여 랍비 문헌에서 가능한 독법
homoio ⁵⁹⁾	유사문미(類似文尾, homoioteleuton) 곧 비슷한 요소가 있어서 빠뜨린 것
ibi ⁶⁰⁾	라틴어 <i>ibidem</i> (‘같은 곳에’)의 줄인말, 주로 문헌 표시에서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는 그 곳을 가리킬 때 씀
idiom	관용적 용법(idiomatic usage)
image	번역본의 독법이 h 를 다르게 이해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경우, 특히 비유적인 속어로 그리한 경우, 또한 아래 <i>pict</i> 를 보라.
imit	주로 ‘sound imit’, 곧 번역자가 히브리어의 소리를 본떠서 거기에 어울리게 번역한 경우, 동음성(同音性, homophony)
inner- Ⓢ (S...)	칠십인역(시리아어역... 등) 한 번역본의 본문 전통 안에서 생긴 변화
k/q	<크티브>/<크레>
lac	공백(lacuna)(둘째, 셋째 비평 장치에 쓰임)
lem	다른 올림말(lemma)을 가리키는 표시
lexic	h 에 나오는 낱말을 어휘상(lexicographical) 확정하는 문제
lexic diffic ⁶¹⁾	어휘상(lexicographical) 어렵거나 모름(그래서 번역하지 않은 것)
mass	마소라의
mm	대 마소라(<i>masora magna</i>)
mss	(부특정) 사본들
nom/pron	명사와 대명사가 서로 바뀐 경우
nom/verb	동사 형태를 지닌 어휘소(語彙素, lexeme)가 명사 형태로 바뀐 경우

58) BHK에서는 haplogr로 BHS에서는 hpgr로 줄여 썼다.

59) BHK에서는 homoetel로 BHS에서는 homtel로 줄여 썼다.

60) 이 줄인말이 널리 알려져 있고, 또 BHS의 줄인말 목록에도 들어 있기는 하나, *HUBJr*와 *HUBIs*의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채 비평란에서는 자주 쓰이므로(보기: 램27:6의 둘째 비평 장치 **הַעֲוָה**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여기에 보충해 넣었다.

61) *HUBJr*의 비평란에도 나오는 이 줄인말에 대한 풀이가 *HUBJr*의 안내문에 빠져 있어서, *HUBIs*, xxxii쪽에서 그 풀이를 여기에 보충해 넣었다.

num	명사나 대명사의 수가 단수 또는 복수로 다르다는 표시
/num/	일정한 범위의 본문 안에서 단수 또는 복수의 일반적으로 달라진다 (이는 또한 동사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표시,
once	(둘째 비평 장치에서 쓰인) 자료나 문맥에서 두 번(또는 그 이상) 나오는 것과는 달리 한 번만 나타난다는 표시
opp	두 낱말이나 형태가 반대된다는 표시
orient	동방(<i>madinha'e</i>) 전통
parall	(때로는 문장론상의 구조를 단순하게 함으로써) 평행법(parallelism)을 더 완벽하게 이루기를 번역자가 바랐기 때문에 생긴 변화를 가리킴
pers	동사의 행위자(<i>agens</i>)와 관련된 인칭(<i>person</i>),성, 수 같은 것의 차이
phon	이들테면 마지막 □ 과 י 이 서로 바뀌는 것 같이 h의 음운상(phonetic)의 문제를 가리킴
pict	ב 를 달리 이해한 데서 영향을 받은 번역이라는 뜻, 특히 비유적인 문장에서 그러한데, 또한 위의 image를 보라.
pm	<i>prima hand</i> 를 뜻하는 이 줄인말은 사본의 초기 상태, 곧 고치기 전의 본디 독법을 가리킴(둘째, 셋째 비평 장치에 쓰임) ⁶²⁾
preced	앞(<i>preceding</i>) 올림말에서 다루는 비슷한 문제와 견주어 보라는 뜻
prep	전치사(<i>preposition</i>)의 차이
prep-pron ⁶³⁾	히브리어에서 인칭 대명 접미어가 붙은 전치사(<i>preposition</i>) 꼴과 관련된 차이, 이를테면 히브리어 ינ 가 헬라어에서는 어미변화한 대명사(<i>pronoun</i>)로 나타냄
pron	독립적으로 쓰이든 접미어로 쓰이든 대명사(<i>pronoun</i>)의 차이
pers-pron	인칭(<i>person</i>)과 대명사(<i>pronoun</i>)의 차이
ptcl	(↳ 문제를 포함하여) 불변사(<i>particle</i>)의 차이
punct	말소하는 점들(둘째 비평 장치에 쓰임)

62) 이 설명은 HUBIs, xxxii쪽에서 보충하였음. HUBJr,xxvi쪽에 나오는 설명과 견주어 보라.

63) 이 줄인말은 HUBIs(xxix, xxxiii쪽)에는 아직 없었는데, HUBJr(xxiii쪽)에 덧붙었다.

ras	사본에서 지운 부분, 또는 자국(erasure)(둘째, 셋째 비평 장치에 쓰임)
reduct	동족 목적어(<i>figura etymologica</i>) 같은 경우에 반복을 줄임(reduction)
reformul	b 본문이 번역본에서 새로 구성되었다(reformulated)는 표시
rep	동족 목적어(<i>figura etymologica</i>) 같은 것을 만들어 반복(repetition)함
retrov	(이차적인) 번역본에서 거꾸로 번역된(retroverted) 것
s	그리고 다음 절(들)
semel	b 에서는 두 번(또는 그 이상) 나오지만 번역본(들)에서는 단 한 번(또는 b 보다 적게) 나오는 요소에 관해 차이가 있다는 표시
seq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비슷한 문제와 견주어 보라
slot	'장황하거나(redundant)' 어려운 말을 바꾸고 '빈(vacant)' 곳을 새 내용으로 채움
sm	<i>secunda manu</i> 을 줄인 이 말은 본문을 고치거나 바꾼 뒤에 생긴 현재 사본의 상태를 가리킴(둘째, 셋째 비평 장치에 쓰임) ⁶⁴)
struct	문장 구조(structure) 이해의 차이나 여러 절 사이에 존재하는 낱말 구분의 차이
super	줄 위에 올려 쓴 것을 가리킴
syn/syntact	문장론상의 정상화, 단순화, 개조 등을 가리킴 ⁶⁵)
transp	자리가 바뀐(transposed) 낱말
Ug	우가리트어(Ugaritic)
unic	한 사본에만 있는
usus	번역자의 언어적이거나 주석적인 습관
var	⓪ _{var} 의 경우처럼 한 인쇄본의 비평 장치에 나오는 이독법(variant)
verb	동사 형태의 '시상'과 또는 상태의 차이(명령형, 분사, 부정사 등)

64) 이 설명은 앞에 나온 pm처럼 *HUBIs*, xxxiv쪽에서 보충하였음. *HUBJr*, xxvii쪽에 나오는 설명과 견주어 보라.

65) *HUBIs*, xxxiv쪽의 설명을 따랐음

verss	모든 번역본 또는 대부분의 번역본에 나타나는 차이
vid app	(HUBIs를 포함하여) 다른 곳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찾아보라는 뜻
voc	주로 'non voc', 곧 낱말에 모음 기호가 붙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쓰임 (셋째 비평 장치)
vocal	모음 기호 표기(vocalization)를 바꿈으로써 낱말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킴
㉞	'모든'이 생략 또는 추가되었다는 표시

4.4. 둘째 비평 장치: 유대 광야 사본들과 랍비 문헌

4.4.1. 둘째 비평 장치의 특성

첫째 비평 장치와 셋째 비평 장치에 기록한 유형의 이독법들은 이전의 히브리어 성서편집본에도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둘째 비평 장치에 담긴 자료들은 이전의 그 어느 편집본 성서도 HUB에서처럼 폭 넓게 포함하지 못했다.⁶⁶⁾ 특히 랍비 문헌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에 반영되어 있는 이독법들을 비평 장치의 틀 안에서 기록한 것은 HUB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바이다.⁶⁷⁾

4.4.2. 둘째 비평 장치의 두 구성 요소

HUB에서는 비평 장치의 종류를 늘이지 않으려고 유대 광야 사본(실제로는 쿰란 사본을 뜻한다)에서 얻은 이독법들과 랍비 자료를 한데 묶어 둘째 비평 장치에서 제시한다. 이 두 자료가 모두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둘 사이의 차이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레미야서 쿰란 사본은 이사야서와는 달리 모두 단편적인 것으로 이천여년 전에 서기관이 쓴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내려 왔다면, <데라샤>에서 인용하거나 사용한 성경 구절에서 이끌어 낸 것 랍비 자료는 전달과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점들, 곧 옛 전통, 문학적으로 결정화(結晶化)된 때, 다른 자료들과 접

66) 이리하여 HUBIs, xxxv쪽의 번호 54에서는 이 둘째 비평 장치가 심지어 '하나의 혁신'(an innovation)을 구성한다고까지 한다.

67) HUBJr, xxvi쪽의 번호 56.

축한 바들, 사본들의 여러 계열, 편집자들이나 개정자들이나 인쇄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⁶⁸⁾

4.4.3. 쿵란 사본 인용 방식⁶⁹⁾

(1) 쿵란 자료로는 쿵란 제2동굴의 예레미야서 단편 사본(2QJer)과 제4동굴 예레미야서 단편 사본들(4QJer^{a,b,c,d,e})을 들 수 있다.⁷⁰⁾

(2) 마소라 본문과 단편 사본의 차이는, 철자법상, 음운론상, 어형론상의 차이들, 또 위첨자(자모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낱말들도), 지운 글자들, 의미 구분을 가리키는 공간 상의 차이 등 모조리 다 적었다. 두루마리와 알렙포 코덱스 사이에 '열린' 단락과 '닫힌' 단락 표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적지 않았다. 철자법 체계와 어형론 체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점들이 2QJer에서 드러나지만, 이것들에 대한 생각은 적지 않았다.

단락 표시에 있어서 쿵란 사본과 알렙포 코덱스가 다를 때는 +§, om §, 또는 15] pr §식으로 절수만 함께 적어 표시한다.

4.4.4. 히브리어 이독법 표기에 쓰이는 기호⁷¹⁾

쿵란 두루마리나 셋째 비평 장치에 실린 중세 히브리어 사본에서 뽑은 히브리어 이독법들을 기록할 때는 다음 여러 기호를 쓴다.

(1) 자모 위에 찍은 점은 보존된 자모가 불완정하지만 그 독법은 분명하거나 그럴 듯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 독법이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dub'라고 쓴다.

(2) 자모 위의 작은 동그라미는 그 자모의 해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3) 한 낱말 가운데에 있는 두 자모 사이에 찍은 점(이를테면 ·^א·^ב)은 한 자모의 나머지 또는 지워진 자국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68) HUBJr, xxviii쪽의 번호 57.

69) HUBJr, xxviii-xxix쪽의 번호 58-59.

70) 이에 대해서는 Florentino Garcia Martinez,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Leiden/New York/Cologne: E.J.Brill, 1994), 471, 477-478쪽을 참고하라.

71) HUBJr, xxix쪽의 번호 60.

4.4.5. 랍비 문헌 인용⁷²⁾

(1) 랍비 문헌은 선택적으로 인용한다. 실제적으로는 모든 자료, 곧 미쉬나와 토셉타와 탈무드와 대부분의 미드라쉬 문헌을 다루었다.

(2)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이독법들은 사본들과 게니자 단편 사본들에서 추려 모은 것이다. 초기 인쇄본들을 포함하여 사십여 증거 본문들에서 이독법들을 모아 배열했는데, 평균적으로는 각 편(篇 tractate) 당 10-12 증거 본문들에서 그리했다. 여러 가지로 실험해 본 뒤에 다섯 사본(대영 박물관 사본[B], 플로렌스 사본[F], 뮌헨 사본[M], 옥스포드 사본[O], 팔마 사본[P])과 네 초기 편집본(엔 야곱[e], 페사로[p], 손치노[s], 베니스[v])을 기호로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그 이름을 밝힌 증거 본문들에 덧붙여서 탈무드 전체(또는 <아가다> 부분)나 그 대부분에 걸쳐서 각 편(篇)에 대한 그 밖의 증거 본문들은 그저 '수만 헤아렸을' 따름이다. 이리하여 이룰테면 어떤 이독법을 분류한 자료들과 분류하지 않은 두 자료(+ 2 mss')에서 인용할 수도 있다.

(3) 둘째 비평 장치에 수록된 랍비 문헌 자료의 분량은 크지 않아서 지나치게 세심하게 자료들의 등급을 매길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초기 랍비 문헌(이른바 <탄나> 랍비 시대)⁷³⁾를 맨 앞에 적고 그 초기 미드라쉬를 나중 것들보다 앞세웠다. 자료들은, 두 미드라쉬에서 뽑은 인용이 사실상 증거 본문을 구성할지라도,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 단위로 인용했다.

(4) 이독법들을 또한 산발적으로는 <피유티>이나 주석서들이나 <카발라> 문헌 등에서도 추려 모으기도 하지만, 인용한 자료의 범위는 탈무드와 미드라쉬를 넘어가지 않는다.

(5) 인용 자료를 가리키는 줄인말은 원칙적으로 해당 편집본의 라틴어 제목 페이지에 적힌 철자를 따라 만들었다.⁷⁴⁾

(6) 각 편(篇)의 이름 앞에 <미쉬나>는 m, <토셉타>는 t,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b, 팔레스타인 탈무드(예루살라미)는 y로, 책 이름을 밝히는 줄인말

72) HUBJr, xxix쪽의 번호 61과 xxx-xxxii쪽의 번호 67-70과 xl쪽.

73) 주전 3세기 초기까지를 말한다(H.L.Strack/G.Stemberger, *Einleitung in Talmud und Midrasch*[München: Verlag C.H.Beck, 71982,16쪽; P.N.Levinson, *Einführung in die rabbinische Theologie*[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31993], 5쪽).

74) HUBIs에서는 히브리어 쓴 안내문 맨 뒤에 두었던 줄인말 일람표를 HUBJr에서는 영어 안내문 맨 뒤(xl-xli쪽)로 옮겼다.

을 쓴다. 이를체면 bBer는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브라코트>를 가리킨다.

(7)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쪽수 매김이 없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이중적인 방식으로, 곧 단락 또는 장의 번호(절 표시 기호인 §을 이 때 쓴다)와 (괄호 안에 쓴) 페이지 수를 써서 인용한다.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장과 빌나 편집본(the Vilna edition)의 <할라카>로써 인용하는 반면에, 괄호 안의 페이지 수는 베니스 편집본을 가리킨다. <알쿠트 쉬모니>⁷⁵⁾는 일반적인 절로 표시하고 <미드라쉬>는 성경의 해당 장 절로 표시한다.

4.5. 셋째 비평 장치: 중세 성서 사본들⁷⁶⁾

4.5.1. 자료의 내용

(1) 이 비평 장치에 모아둔 증거 자료들은 모두 '마소라 시대'에 쓴 히브리어 성서 사본들이고 주후 9세기 후반 이후⁷⁷⁾의 것들이다.

(2) 이 비평 장치에는 두 유형의 자료들이 들어 있다. 첫째는, 정선하여 새로 대조한 케니코트 사본 30, 89, 93, 96, 150, 둘째는 게니자 사본들과 또 다른 모음 기호 체계로 적힌 단편 사본들이 그 자료들이다. 다른 인쇄본에서 이런 자료들을 거의 다룬 적인 없기 때문에 폭넓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G-B Eb 15인데 이는 바빌로니아 모음 기호를 지닌 게니자 단편 사본을 가리킨다.

4.5.2. 자료 인용 방식

(1) 각 올림말 다음에, 앞서 언급한 두 무리의 자료에 속한 증거 자료들은 <세미콜론>(;)으로 서로 분리한다. 첫째 유형의 자료는 있는 대로 다

75) <알쿠트 쉬모니>('시몬의 문집')는 구약 전체에 대한 미드라쉬를 모아둔 방대한 책으로 13세기에 시몬 하다르샨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의 주75에서 이끌어 쓴 Strack/Stemberger의 책, 314-315쪽).

76) *HUBJr*, xxxii-xxxiii쪽의 번호 71-77쪽. 이 부분은 *HUBIs*, xli-xliv쪽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HUBJr*가 넷째 비평 장치에 대한 안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언급하던 여러 '마소라 코덱스'를 *HUBIs*에서는 이미 셋째 비평 장치에 대한 안내에서 함께 다룬다. 또 *HUBIs*에서는 케니코트 사본 말고도 데 로씨 사본과 긴스버그 사본도 다루는데, *HUBJr*에서는 케니코트 사본만 다룬다. *HUBIs*, xliv쪽의 각주 172에 따르면, 케니코트는 긴스버그와는 달리 모음 부호를 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7) *HUBJr*, xi-xii쪽의 번호 13에서는 약 800년 이후라고 했다.

배열하고, 둘째 유형의 자료의 경우에는 그런 사본들을 HUB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맞추어 보았다. 팔레스타인 또는 바빌로니아 모음 기호를 지닌 단편 자료 가운데 알려진 것은 모두 다루었다.

(2) 히브리어 사본들의 독법들을 기록하는 체계와 기록할 때 쓰는 기호와 줄인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⁷⁸⁾

4.6. 넷째 비평 장치: 철자법, 모음, 억양

4.6.1. 넷째 비평 장치의 의의⁷⁹⁾

이 비평 장치에 기록된 이독법들, 곧 완전 표기와 불완전 표기의 차이, 모음 기호의 차이, 억양 기호와 <페텍>의 차이 같은 것은 본문의 의미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사소한 세부 사항에 관한 서기관의 정확성은 종교 의식에서만 중요하게 보이고, '마소라 코덱스'의 가치를 결정할 만 하다.

4.6.2. 자료의 범위와 성격⁸⁰⁾

(1) 기본적으로 이 비평 장치에서는 알렘포 코덱스의 전통에 가까운 다음 사본들을 다룬다.

- ⌘ - 알렘포 코덱스, 성경 전체(보존 불완전), 10세기 초
- ↷ - 레닌그라드 코덱스 B 19a, 성경 전체, 1009년에 씌어짐⁸¹⁾
- Ⓜ - 제2 랍비 성서, 베니스 1524-5년
- Ⓜ - 뉴욕 사본, ENA 346+JTS 232, 후기 예언서, 10세기
- Ⓜ - 코덱스 페테스부르그 Heb B3, 후기 예언서, 916년에 씌어짐

78) 위 4.4.4와 4.3을 보라.

79) HUBJr, xxxiii쪽의 번호 78과 HUBIs, xlv쪽의 번호 84.

80) HUBJr, xxxiii-xxxv쪽의 번호 79-84와 88.

81) HUBJr 별지 약어 및 부호 일람표 맨 끝에서는 이를 Leningrad I Firk B 19a라고 쓴다. 우리말로는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모음 B 19a'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서면서 레닌그라드도 옛 이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되찾게 되어 이를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피르코비치 사본(부호 F)으로 부르는 주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의 주1에서 이끌어 쓴 민영진의 글, "BHQ 하박국서 견본: 평가와 제안", 161쪽을 참고하라. 아래에서는 다른 피르코비치 사본과 구별하기 위해서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라 부르기로 한다.

ρ - 카이로 코덱스, 예언서, 895년에 씌어짐

⌒ - 코덱스 칼스루에 3('로이힐린'), 예언서, 1105년에 씌어짐

Ϙ - 샷순 사본 1053, 성경 전체, 10세기

(2) ⌒와 ρ와 Ϙ와 ϙ는 티베리아 마소라 사본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네 사본인데⁸²⁾, 그 가운데서도 ⌒와 ρ는 벤 아쉐르 전통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ϙ와 함께 넷째 비평 장치 작업의 근간을 이룬다. ϙ와 ⌒는 티베리아 표준 본문과 다르지만 그것에 가까운 전통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본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ϙ은 술한 후기 성서 편집본들의 기초가 됨으로써 초기 사본들과는 반대의 축을 이루고 '실제적으로' '티베리아 표준 본문'으로 간주된 바를 반영한다.

이리하여 넷째 비평 장치에 적힌 증거 본문들은 비 티베리아 전통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비 표준'(non-receptus) 티베리아 전통들 및 세부 사항에 있어서 다른 후기 사본들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이 비평 장치는 한편으로 티베리아 '벤 아쉐르' 유형의 옛 증거 본문들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유형들의 옛 대표 본문들, 또한 후기 인쇄본들의 기초가 된 야곱 벤 하임의 (제2) '랍비 성서'에서 마지막 꼴을 갖추게 된 티베리아 전통의 발전물들을 반영한다.

(3) 그 밖에도 최근에 쓸 수 있게 된 다음의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들⁸³⁾도 완전히 대조하여 넷째 비평 장치에 넣었다.

- 4 - ⌒ - 레닌그라드 II Firk 124
- 8 - ⌒ - 레닌그라드 II Firk 225
- 10- ⌒ - 레닌그라드 II Firk 1283
- 18- ⌒ - 레닌그라드 II Firk 59⁸⁴⁾
- 19- ⌒ - 레닌그라드 I Firk 51
- 20- ⌒ - 레닌그라드 II Firk 9
- 23- ⌒ - 레닌그라드 II Firk 116
- 1 - ρ - Gottheil 22

82) HUBIs, xliii쪽의 번호 78.

83) 아래에 적힌 사본들을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구별하기 위해서,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124'등으로 부르기로 한다.

84) 이것이 파란색으로 된 별지 영어 약어표에서는 레닌그라드 I Firk 59로 잘못 풀이되어 있다.

4.6.3. 자료 인용 방식⁸⁵⁾

(1) HUBIs에서는 편집자들이 각 자료를 맞추어 본 완전도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מ ר פ ק ש נ ל 순서로 증거 본문들을 인용했지만⁸⁶⁾, HUBJr에서는 기호의 알파벳 순서로 하되 מ은 맨 끝에 두는 식으로, 곧 מ ש ר פ ק נ ל 순서로 한다.

(2) ל와 ק과 ש이 언급되지 않을 때는 이것들이 נ와 일치함을 뜻한다. ל의 경우에는 본문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명백하게 인용될 때만 판단할 수 있다.

(3) 벤 아쉐르와 벤 납달리의 차이도 기록하는데, 그 줄인말은 각각 נ"ג와 ל"ג이다.

(4) 올림말에서는 낱말의 자음은 다 쓰지만 모음 기호나 억양 기호나 <메텍>은 문제가 되는 자모(들)에만 붙이고, 인용되는 증거 본문에서는 자음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만 적는다.

(5) 사본의 본디 독법은 '로, 고치거나 바꾼 독법은 "로 표시하는데, 이 두 기호는 둘째 비평 장치의 pm과 sm에 각각 상응한다.

(6) 인쇄인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해당 인쇄본의 <마소라>가 본문과 다른 내용을 나타낼 때에는 이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는 각각 פ"מ과 ל"מ으로 줄여 쓴다.

5. HUBJr 비평 장치 해설의 보기

아래에서는 네 가지 비평 장치와 맨 아래 해설란을 통틀어 그 기록 내용을 HUBJr 10장 1-5절과 27장 1-7절 본문의 낱말 순서를 따라 BHS 비평 장치 내용과 견주어 보면서 풀이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항목, 곧 올림말과 그 올림말에 대한 기록을 HUBJr에 적힌 대로 옮겨 쓴 다음에, 줄을 바꾸어 그에 대한 풀이를 적기로 한다. 한 항목에 대한 기록에 대한 풀이가 끝나면 한 줄을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비평 장치에서 한 올림말에 대해 다루고 있거나 몇 항목이 내용상으로 긴밀히 연결될 때는 항목 사이에 줄을 띄우지 않고 이어서 쓰기로 한

85) HUBJr, xxxiv-xxxv쪽의 번호 81-82, 85-87과 각주 111-112.

86) HUBIs, xlvi쪽의 번호 91.

다.

5.1. 10장 1-5절

1절

1절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는 BHS 비평 장치와는 달리 HUBJr에는 이미 1절에 여러 종류의 기록이 비평 장치에 들어 있다.

IV⁸⁷) ¶ (ⓐ) : פ 19 18-ל ל [(פ) 1

마소라 본문 1절의 낱말 순서대로 볼 때 비평 장치에 맨 먼저 나오는 올림말은 넷째 비평 장치의 (פ)이다. 철자법과 모음 기호와 억양 기호의 차이를 다루는 넷째 비평 장치는 첫째, 둘째, 셋째 비평 장치와는 달리, 히브리어를 쓰고 읽는 방식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적혀 있다. 그리하여 올림말과 그 올림말에 대해 기록한 바를 구별하는 반쪽 꺾쇠 괄호도]이 아니라 [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올림말과 구별하는 부호 ׀도 첫째, 둘째, 셋째 비평 장치의 경우(׀)와는 달리 혹은 달린 부분이 왼쪽 아래에 있다.⁸⁸⁾

(פ)는 9장 마지막절과 10장1절 사이에 열린 단락 표시가 알렙포 코텍스에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런데, BHK와 BHS와 BHQ의 대본인 레닌그라드 코텍스 B 19a(ל)와 피르코비치 사본 I 59(18-ל)와 51(19-ל)과 뉴욕 사본(ג)과 카이로 사본(פ)에서는 열린 단락 표시 대신에 닫힌 단락 표시인(ⓐ)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다.

I 1 'ה-תא|ⓐ־לֹגוֹן (ⓐ_{var} τὸ ῥῆμα) κυρίου ὃν ἐλάλησεν⁽¹⁾

1절의 다음 올림말은 첫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ה-תא이다. 반쪽 꺾쇠 괄호]는 그 앞에 올림말이 있고, 그 뒤에 올림말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여기서 'ה는 이른바 신성사문자(神聖四文字) יהוה를 줄인 표이고, 'ה-תא은 תא부터 יהוה까지, 곧 יהוה דְבַר אֱשֶׁר דְבַר אֱת־הַדְבַר('야훼께

87) 여기서 비평 장치 각 항목 해설 맨 앞에 쓴 로마 숫자 I, II, III, IV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를 가리킨다.

88) 그렇지만 아래에서는 앞의 주3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의상 계속 ¶을 쓰기로 한다.

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⁸⁹⁾를 가리킨다. 이 부분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Ϛ)에는 λόγον κυρίου ὃν ἐλάλησεν(“그[=주님]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또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λόγον대신에 τὸ ῥῆμα가 쓰인다. 맨 마지막에 괄호 안에 숫자 1을 적어 올려 쓴 것은, 이에 대한 설명이 맨 아래 해설란에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1 (1) ~ transp; vid app 1₁

이 있다. 곧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에 있는 이러한 차이를 낱말의 순서가 달라진 것으로 보면서, 1장1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거기 첫째 비평 장치를 보면, ‘예레미야의 말들’(רמייהו ם רברי)이라는 마소라 본문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τὸ ῥῆμα τοῦ Θεοῦ ὃ ἐγένετο ἐπὶ Ιερεμίαν)이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V הזז + ר: [הרבר]

로이힐린 사본(ר)의 본디 독법에서는 הרבר(“그 말씀”)에 한정적 지시 형용사 הזז(“이”)가 덧붙여 있어서, 그 전체가 ‘이 말씀’을 뜻하게 된다.

IV בית [נ: בת ; נ-מ"ק : בית ק

בית(“집”)의 בית(“집”)가 뉴욕 사본(נ)의 본디 독법으로는 בת(“딸”, 아니면 בית 불완전표기한 꼴?)이고, 랍비 성서(נ)의 소 마소라(מק)에서는, 이를 בית로 읽으라고 한다(ק).

2절

IV כה | [נ-ר-מ"ק : "לו"]

2절 첫 낱말 כה(“이처럼”)에 역양 기호 <르가르메>(1.)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뉴욕 사본에도 나오고 또 로이힐린 사본의 소 마소라에서도 <르가르메>라고 밝히고 있다.

II צבאות ¶ [ה] SechTGen 15₃₆₍₇₎

89) 이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어 문장이나 문장의 부분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축자적인 번역을 시도하기로 한다.

<세켈 토브>⁹⁰⁾ 창세기 15장 36(7)절에서는 본문 2절의 יהוה('야훼')에 צבאות('만군의')가 덧붙어서 '야훼'가 '만군의 야훼'로 되어 있다.

III 2 'ה] 89 + עליכֶם (non voc) ¶

케니코트 사본 89에서는 יהוה('야훼')다음에 עליכֶם('너희에 관해')이 모음 기호 없이 덧붙여 있다.

I 2 אל] אַ prep ¶

탈굼과 시리아어역에서는 אל-דרך הגויִם('민족들의 길로')에 쓰인 전치사 אל('로')에 상응하지 않는 다른 전치사가 쓰인다. 이에 대해 둘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 אלדרך⁹¹⁾] bSuk 29a 1 ms מדרך ¶

가 있다. 곧 אל-דרך('길로')가 바빌로니아 탈무드 <숙카>편(篇, tractate) 29쪽 a란(欄, column)의 한 사본에서는 '길로부터'(מדרך)로 되어 있어, 그 전치사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BHS 비평 장치에서는 이 전치사 אל을 12장 16절을 참고하여 - 그 구절을 보면, אִם-לָמַד לְמַדּוֹ אֶת-דַּרְכֵי עַמִּי('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정말 배운다면')이란 부분이 있다 - 목적격을 표시하는 낱말 את로 바꾸어 읽기를 제안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안에 나오는 병행 표현이나 구절을 자세히 기록하는 HUBJr 비평 장치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12장16절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I · דרך] אַ num ¶

단수형 명사 דרך('길')에 상응하는 말이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탈굼에서는 복수형으로 나온다. 실제로 칠십인역에서 이 부분을 찾아 보면 ὁδοὺς('길들')로 되어 있다.

여기서도 앞서 BHS의 비평 장치가 언급한 12장16절 칠십인역에서는 마소라 본문의 복수형 명사 דַּרְכֵי가 단수형 ὁδό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 א : 20-ל [אל-¹

90) <세켈 토브>는 므나헴 벤 살로모가 1139년에 쓴, 오경에 대한 미드라쉬 식의 문집이다(앞의 주77에서 이끌어 쓴 Strack/Stemberger의 책, 319쪽).

91) 올림말을 위 본문에 적힌 것에 맞추려면, אל-דרך라고 써야 한다.

이 경우 올림말은 2절에 두 번 나오는 부정어(否定語) **אַל**(‘말라’) 가운데서 첫 것, 곧 **אַל-תִּלְמְדוּ**(‘너희는 배우지 말라’)에 나오는 **אַל**을 가리킨다. 이 부정어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9(20-5)에서는 **לֹא**로 되어 있다.

I **תִּלְמְדוּ**] **⚡**_{var} πορευεσθε⁽¹⁾ ¶

אַל-תִּלְמְדוּ(‘너희는 배우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의 정동사형 **תִּלְמְדוּ**에 상응하는 낱말로써 칠십인역 이독법에서는 **πορευεσθε**(‘너희는 가지’)가 있다. 앞서 나온 **אל-דרך הגוים**(‘민족들의 길로’)에 쓰인 전치사 **ל**에 맞추어 보면, ‘민족들의 길(들)로 너희는 가지 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이독법이 잘 어울린다.

이에 대해 주(1)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2 ⁽¹⁾frequent idiom; cf. Mt 10₅

가 있다. 곧 ‘길로 가다’는 자주 볼 수 있는 관용적 용법이고, 마태복음 10장5절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열 둘을 내보내시면서 **εἰς ὄδον ἐθνῶν μὴ ἀπέλθητε**(‘민족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다.

I **אתות (ומ)**] **⚡**_{var} Θηριῶν⁽¹⁾ ¶

ומאתות השמים אל-תִּתְּנוּ(‘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에게 겁먹지 말라’)의 첫 낱말에 들어 있는 **אתות**(‘징조들에게’)이 칠십인역의 이독법으로는 **Θηριῶν**(‘짐승들에게’)이다. 주(2)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²⁾p inner-⚡ ⇐ σημειῶν (⚡); p exeg, cf ω'ζωδίους

가 있다. 곧 위의 이독법은 아마 칠십인역의 본문 전통 안에서 생긴 것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에 나오는 **σημειῶν**(‘징조들에게’)에서 온 것이리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요세푸스의 저작에서 **ζωδίους**(‘동물들에게’)⁹²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아마 주석에 근거한 이독법일 수 있으리라 한다.

II **ומאתות**] Yal II §285 (sem) **ומחקות**

ומאתות이 <알쿠트 쉬프오니> 제2권 285절에서는 **ומחקות**(‘그리고 정한 바들’)로 되어 있다. sem은 라틴말 **semel**의 줄인말로 앞서 나온 이독법

92) ζωδίους은 하늘 십이궁(宮) 별자리에 드러나는 동물 표지(標識)를 가리키기도 한다(W.Gemoll, *Griechisch- 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buch* [München/Wien: Freytag Verlag/Hölder-Pichler-Tempsky, 1954], 356쪽).

이 여기 한 번만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⁹³⁾

IV וּמֵאֲתוֹתָּא [ומאתות] : פ' : מאתות ; ל-18 נקמ : ס

וּמֵאֲתוֹתּוֹ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불완전하게 표기된 꼴 וּמֵאֲתוֹתּוֹ로, 페터스부르그 사본의 본디 독법으로는 접속사 ו가 없는 꼴 מֵאֲתוֹתּוֹ로 나오고,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그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ס).

IV כִּי- [כי-] ל-18 20 נקמ : ס

레닌그라드 코텍스 B19a와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9와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접속사 כִּי 아래에 <메텍>이 있다(ס).

I אֹתָּא לְהַגּוּיִם מֵהֵמָּה] αὐτὰ τοῖς προσώποις αὐτῶν⁽³⁾

הַגּוּיִם מֵהֵמָּה(‘그 민족들이 그것들에게 겁먹도다’)의 אֹתָּא לְהַגּוּיִם מֵהֵמָּה(‘그 민족들이 그것들에게’)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αὐτὰ τοῖς προσώποις αὐτῶν(‘그것들을, 그들의 얼굴에 대해[=그 앞에서]’)가 나온다. 이에 대해 주(3)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³⁾om הַגּוּיִם; p dupl מֵהֵמָּה/מִפְּנֵיהֶם(vid app 42₁₆); hardly context exeg (‘lifting face towards heaven’, cf v₅)

가 있다. 곧 הַגּוּיִם(‘그 민족들’)이 칠십인역에 빠져 있고, 칠십인역의 독법은 아마 מֵהֵמָּה/מִפְּנֵיהֶם(‘그들을, 그 얼굴을[=그 앞을]’)의 이중 독법이었을 것인데, 42장 16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보라는 것이다. 거기 보면 히브리어 מִמְּנָה מֵהַגּוּיִם의 מִמְּנָה에 상응하는 것으로 칠십인역에서는 ἀπὸ προσώπου αὐτῆς가 나온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10장 5절(וּמֵהַגּוּיִם)과 견주어 보면 이를 ‘하늘로 얼굴을 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주석상으로 거의 문맥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IV מֵהֵמָּה [מהמה] : נ' : ה

מֵהֵמָּה(‘그것들을’)의 둘째 모음이 뉴욕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짧다(ה).

3절

IV 3 [ס-] : 23-ל : פ

93) HUB_{Jr}의 줄인말 목록에는 빠져 있다.

3절에 이음줄(<막셉>) 붙은 접속사 <כי>(כִּי)가 두 번 나오지만, 첫째 경우에는 그 아래에 <메텍>이 있고, 둘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서로 구별이 된다. 첫째 경우에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116(23-ל)에서는 <메텍>이 없다(כּ).

I 3 חקוֹת] ט num ¶

복수형 명사 חקוֹת('...의 정한 바들')가 탈군에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IV ¶ הגוֹיִם + : ' [חקוֹת

뉴욕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חקוֹת에 הגוֹיִם('그 민족들')이 덧붙여 있다.

BHS 비평 장치에서는 חַמַּת אֱלֹהִים('하나님에게 겁먹음')이라는 표현이 있는 창세기 35장 5절을 참고하여 이 חקוֹת을 חַמַּת('...의[또는 ...에게] 겁먹음')로 고쳐 읽기를 제안한다. 그렇지만, 이 제안을 뒷받침할 사본상의 근거는 아직 없다.

IV ¶ הָ : מ 23 18-ל ל [הַעֲמִים

레닌그라드 코텍스 B 19a와 피르코비치 사본 II 59(18-ל)와 116(23-ל)와 랍비 성서에서는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 חַיִּי-עֵץ ^ הוּא] ט ^ ξύλον ἐστίν⁽¹⁾ ¶

마소라 본문에서는 חַיִּי-עֵץ מֵעֵד כְּדָתוֹ 들어 있는 단수 삼인칭 대명사 הוּא가 그 앞에 오는 세 낱말과 한데 어우러져서 חַיִּי-עֵץ מֵעֵד כְּדָתוֹ הוּא('그 백성들의 정한 바들은 헛 것이라')라는 문장에서 계사 역할을 하고, חַיִּי 다음 문장이 시작된다. 그리하여, 읽을 때에 חַיִּי-עֵץ와 הוּא 사이에서 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글러의 칠십인역에서는 ξύλον ἐστίν('그것은 나무이다')이 חַיִּי-עֵץ와 הוּא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오면서 그 앞에서 쉬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1)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3 ⁽¹⁾struct, p connected with om כִּי (cf ט_{var}) and transp

가 있다. 곧 칠십인역의 독법은 끊어 읽기가 달라진 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마 כִּי는 빠지고(칠십인역의 이독법 참고) 낱말의 자리가 달라졌으리라는 것이다.

I הוּא] טס pron ¶

단수 남성 삼인칭 대명사 **הוא**가 불가타와 탈굽과 시리아어역에서 달라진다.

IV כִּי : 20 ל-ל [כִּי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9에서는 3절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접속사 **כִּי** 아래에 <메텍>이 있다.

I כִּרְתוֹ] ἔκκεκομμένον⁽²⁾=**ς;ϛ**> pron ¶

כִּרְתוֹ (**כִּרְתוֹ** '([사람이] 그것 [= 나무]을 베었다')을 뜻하는 낱말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는 ἔκκεκομμένον('베인')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2)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²⁾diath

가 있다. 곧, 여기서는 히브리어의 능동형이 헬라어에서는 부정 주어를 지닌 수동형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시리아어역에서도 볼 수 있다. 불가타도 이와 비슷한데 - <세미콜론>(:)은 거의 같은 독법을 증거하는 다른 번역본을 인용할 때 쓰는 기호이므로 -, 대명사가 빠져 있다.

III כִּרְתוֹ] 93 (pm) כִּרְתוֹ?

כִּרְתוֹ ('그가 그것을 베었다')가 케니코트 사본 93에서 본디 **כִּרְתוֹ** ('그가 그것을 파내었다' 또는 '그가 그것을 사들였다')였는지 의심스럽다.

I [מַעֲשֵׂה יָדַי-חֲרָשׁ] ἔργον τέκτονος⁽³⁾ ¶

מַעֲשֵׂה יָדַי-חֲרָשׁ ('목공의 손의 작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에서는 ἔργον τέκτονος('목공의 작품')이 나온다. 이에 대한 주(3)을 보면

⁽³⁾om יָדַי, cf v₉

로 되어 있다. 곧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יָדַי** ('손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 9절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מַעֲשֵׂה חֲרָשׁ** ('목공의 작품')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IV [מַעֲשֵׂה] ל-ל 19 נ-מ ; נ : ש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I 51과 뉴욕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מַעֲשֵׂה**의 첫 자음 아래에 <메텍>이 있고, 뉴욕 사본에서는 그 셋째 자모의 모음이 짧게 적혀 있다.

IV יִי־ ל ל-ל 18 ק ש : גַּ | ¶

레닌그라드 사본 B19a와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카이로 사본과 샷순 사본에서는 יִי־ <메텍>이 붙어 있다.

I [במעצד] ⚡ και Χώνευμα⁽⁴⁾

במעצד(‘도끼로’)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는 και Χώνευμα(‘그리고 주조물[鑄造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주(4)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⁴⁾lexic diffic, √יעק, cf I Reg 7₁₆(74) ⚡; → prep

가 있다. 곧, 낱말 Χώνευμα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데, 열왕기상 7장 16절(칠십인역에서는 7장 4절) 칠십인역을 참고하면 - 거기 보면 히브리 낱말 עַק에 상당하는 헬라 말로 χωνευτὰ가 나온다 - 그에 상응하는 히브리말의 뿌리로서 יעק(‘주조하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칠십인역의 독법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곧 마소라 본문에 있는 전치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IV [במעצד] נ מ : כּבּ

뉴욕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במעצד의 둘째 자모 아래에 억양 기호 <딤하>(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그은 선)가 덧붙여 있다.

4절

IV [בנסר] ל-ל 19 : כּכּ |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בנסר(‘은으로’)의 첫 모음이 짧은 ‘아’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I [יִי־הוּ] ⚡ κεκαλλωπιόμενα ἐστίν (⚡_{var} >)⁽¹⁾ | ⚡ מִי־עָ ≈ ט
 ¶ [מחפּי ליה]⁽²⁾

[יִי־הוּ](‘그가 그것을 꾸미도다’)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κεκαλλωπιόμενα ἐστίν(‘그것들이 꾸며져 있도다’)가 나오고, ἐστίν이 칠십인역 이독법에서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주(1)을 보라는 지시대로 아래 해설란을 보면,

4 ⁽¹⁾diath, sim ⚡

가 있다. 곧 히브리어 본문의 능동형이 헬라어에서는 수동형으로 달라졌고, 시리아어역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시리아어역에서는 קרימין(‘덧입혀진 것들’)⁹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탈굼의 מִחְפֵּי לֵיָּהּ(‘사람이 그것에 [무엇을] 입히다’)과 거의 같다. 이에 대한 주(2)는

⁽²⁾context exeg, cf Is 30₂₂, p יצפהו/יחפהו

이다. 곧 문맥에 맞추어 주석한 데에 근거한 번역이라는 것인데, 이사야 30장 22절을 참고해 보면 이는 아마 יצפהו(‘사람이 그것에 [무엇을] 덧입히도다’)나 יחפהו(‘사람이 그것에 [무엇을] 입히도다’)의 번역일 것이라 한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도 탈굼의 *mhpj ljh* = יצפהו라고 하면서 시리아어역을 참고하라고 한다. 아울러 9절을 יִפְּהוּ 다음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는 아마 글의 흐름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4절 첫머리 ‘은과 금으로 꾸미고, 곧 다시스에서 가져 다듬은 은과 우바스에서 온 금..’이란 식으로 글이 이어질 수 있다.⁹⁵) 그러나 사본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I במסמרות ובמקבות S ~ transp_{II} ¶

지글러의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서는 במסמרות ובמקבות(‘못들로 또 망치들로’)에 상응하는 부분의 낱말 순서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둘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 במקבות [ובמסרות] 4QJer-b [מסמרות ובמקבות]

가 있다. 이에 따르면, במסמרות ובמקבות가 쿨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편 사본 b에서는 [ובמסרות] במקבות(‘망치들로 [또 못들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안은 추정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쿨란 사본은 칠십인역은 같은 전통을 반영하다.

IV במקרות ל-19:?: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못들로’(במסרות)라는 낱말 안에 두 번째로 나오는 자모 <מ>에 중복점(<다게쉬 포르테>)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94) 시리아어 동사 קרם 뜻은 ‘덧입히다’(überziehen)이다(C.Brockelmann, *Syrische Grammatik mit Paradigmen, Literatur, Chrestomathie und Glossar*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¹¹1968], 199*쪽).

95) BHK와 BHS 예레미야서 편집자인 루돌프의 다음 사역과 견주어 보라 - ¹⁴mit Silber und Gold geziert, ⁹mit dünngehämmertem Silber, aus Tarschisch stammend, und mit Gold aus Ufas"(W.Rudolph, *Jeremia*[Tübingen: Verla J.C.B.Mohr, ³1968], 70 쪽).

I יחזקום] 𐤏 *conpegit*^o; 𐤌 pers-pron | 𐤍 var + Θήσουσιν αὐτά⁽³⁾ ¶
 יחזקום('그들이 그것들을 강하게 하도다')가 불가타에서는 *conpegit*('그가
 짜맞추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 낱말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며, 탈굼에서는 인칭과 대명사가 달라진다.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여기에 Θήσουσιν αὐτά ('그것들에게 빌도다')가 덧붙여 있는데, 이에 대한
 주(3)은

⁽³⁾ex Is 41₇ 𐤍

이다. 곧 이는 이사야 41장 7절의 칠십인역에서 왔다는 것이다.

III יחזקום] 96 יחזקום:

케니코트 사본 96에서는 יחזקום이 יחזקום으로 되어 있다.

IV ולוא [לוא] ל-18 19 23 פ' ק' ר' ש' : ולוא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51과 116과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본디 독법과 카이로 사본의 본디 독법과 로이힐린 사본과 샷순 사본에서
 는 ולוא가 לוא로 되어 있다.

I יפיק] 𐤍 κινηθήσονται^o ; 𐤍 𐤍⁽⁴⁾ = 𐤏

יפיק(그래서 그것이 비틀거리지 않는다)의 단수형 정동사 יפיק
 ('그것이 비틀거리지')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는 복수형 정동사
 κινηθήσονται('그것들이 움직이지')가 나온다. 시리아어역에는 𐤍 ('그
 것이 구조받지')⁹⁶)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4)는

⁽⁴⁾not √פרק

이다. 곧 뿌리가 פרק('헐어버리다')인 히브리 낱말에서 이 시리아 정동
 사가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불가타에는 시리아어역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BHS 비평 장치에서는 근거를 대지 않고 יפיק를 복수형 יפיקו으로 고쳐
 읽으라고 한다.

5절

I כחמר מקשה] 𐤍 ἀργύριον τορευτόν⁽¹⁾; σ' ῥινητὰ καὶ τορευτὰ⁽²⁾ ¶

96) 시리아어 동사 פרק의 뜻은 '구조하다'(retten)이다(앞의 주98에서 이끌어 쓴 책,
 195*쪽).

כַּתְּמָר מְקַמָּה(‘오이밭의 허수아비 같다’)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ἀργύριον τορευτόν(‘다듬은 은’)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주(1)은

5 ⁽¹⁾lexic diffic; p כַּתְּמָר, cf Lam 4₁ 𐤇; for ἀργύριον cf metals in v₉, Num 10₂; מְקַמָּה ≡ τορευτός, usus (vocal, for which see also a' ≈ 𐤀; q' ≈ 𐤑); → ἐστίν

이다. 곧 칠십인역에 나온 어휘의 뜻을 제대로 알아내기 어려운데, 예레미야 애가 4장1절 칠십인역을 참고해 보면, 이는 아마도 히브리 낱말 מְקַמָּה(‘좋은 금’)의 번역이리라는 것이다. 거기에 보면, 마소라 본문의 מְקַמָּה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τὸ ἀργύριον τὸ ἀγαθόν(‘좋은 은’)이 나온다. 또 ἀργύριον(‘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10장 9절과 민수기 10장 2절에 나오는 여러 금속과 견주어 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מְקַמָּה를 τορευτός(‘다듬은’)으로 옮긴 것은 알맞는데⁹⁷⁾, 이는 번역자의 언어 습관이거나 주석상의 습관으로 볼 수 있다. 곧, 모음 기호를 바꿈으로써 다른 유형의 낱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퀼라역과 테오도시온역도 보라고 하는데, 이 둘은 각각 탈굼 및 시리아어역과 거의 같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또한 ἐστίν이 생겼다는 것이다.

מְקַמָּה כַּתְּמָ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쉘마쿠스역에서는 ῥινητὰ καὶ τορευτὰ(‘윤낸 것들과 다듬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2)는

⁽²⁾σ-parall

이다. 곧, 쉘마쿠스역에서는 평행법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IV ¶ הַמָּה : שׁ 19-ל [הַמָּה]

הַמָּה(‘그들’)의 첫 자음 왼쪽 위에 붙은 억양 기호<친노르>(또는 <자르타>)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샷순 사본에서는 마지막 자음 왼쪽 위에 온다(הַמָּה)

I לֹא(ו)⁹⁸⁾ 𐤇 > III IV ¶

וְדַכְרוּ לֹא(‘그리하여 그들은 말하지 못한다’)의 첫머리 접속사 ו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이에 대해 셋째, 넷째 비평 장

97) הַמָּה의 출25:18,31,36; 37:7,17,22; 민8:4; 10:2에서는 잘 다듬어 만든 물건을 뜻하고, 사1:8; 렘10:5에서는 오이밭을 뜻한다(L.Köhler/W.Baumgartner, *Hebräische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3.Auflage, 2 Bde.[Leiden/New York/Köln: E.J.Brill, 1995], 595쪽).

98) 올림말 לֹא(ו)는 (לֹא)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I ולא] 150 (pm) לא ¶

IV ¶ לא : פ' ר' [לא]

이 있다. 곧, 케니코트 사본 150 본디 독법과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본디 독법과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은 ולא 대신에 לא이었다는 것이다.

I ידברו] ¶ πορεύσονται⁽³⁾ ¶

ידברו] ¶ לא에 들어 있는 정동사형 ידברו('그들은 말하지')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πορεύσονται('그들은 가지')가 나온다. 이에 대한 주(3)은¹

⁽³⁾p exeg, cf v_{4b} (¶-parall)_{5b}, Ps 115; p etym √ דבר (aram)

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이는 아마 주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칠십인역으로는 병행이 되는 4절 후반절, 5절 후반절, 시 115편 7절을 참고 하라고 한다. 4절 후반절 칠십인역에서는 목공이 망치와 못으로 우상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그것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했으므로, 5절에서 그것이 다듬은 은이라도 가지 못한다고 한다. 5절 후반절에는 '그것들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한다. 시 115편 7절에 따르면 우상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또한 아마 어원상으로 뿌리가 דבר('이끌다', '앞장서다'⁹⁹)인 아람어 동사에 근거하여 아람화 경향을 띤 주석을 했으리라는 것이다.

III ידברו] 30 (pm) + ולא ¶

케니코트 사본 30에는 본디 ידברו] ¶ לא 다음에 ולא가 덧붙여 있었다. 이럴 경우,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ינשוא ינשוא를 부정하게 된다.

I]⁽⁴⁾ נשוא - אותם ¶ var ①; ¶ var pers ¶

נשוא]부터 אותם까지, 곧

נשוא ינשוא כי יצעד אל־תיראו מהם כי־לא ידעו וגם־חיטיב איך אותם ('그것들이 반드시 떼어 옮겨져야 하리라. 그것들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함 이라. 너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좋게 함도 그들에게는 없음이라')에 대한 주(4)는 다음과 같다.

⁽⁴⁾ ¶ transp after v₉₁₁; vid seq; order of ¶ (and reconstructed order of 4QJer-b) is as following: v₅ ידברו - כתמר; v₉; v₅ אותם - נשוא; v₁₁; note

99) Stanislav Segert, *Altaramäische Grammatik mit Bibliographie, Chrestomathie und Glossar*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Leipzig, 1990), 530쪽.

order of 4QJer-a = b

칠십인역에서는 이 부분이 9절 뒤에 자리잡는다. 둘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에 따라 보면,

II 6-8] 4QJer-b >

라고 되어 있다. 곧, 6-8절에 상응하는 부분이 쿰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편 사본 b에는 없다는 것이다.

계속 주(4)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 항목을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다음 항목과 견주어 보라고 한 다음, 칠십인역의 순서(와 쿰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편 사본 b에서 재건한 순서)에 따를 경우 본문이 5절의 כַּתְּמָר부터 יַדְבֵּרוּ까지, 9절, 5절의 나머지 부분(נְשֹׂא부터 אֹתָם까지), 11절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쿰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편 사본 a의 순서는 마소라 본문과 같다는 사실에 유의하라고 한다.

이제 נְשֹׂא부터 אֹתָם까지에 대한 첫째 비평 장치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 보자.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그 첫머리에 접속사 ו에 상응하는 말이 있고, 동사 주어의 수가 복수에서 단수(ἀρθῆσεται, '그가 옮겨지리라')로 달라진다.

III [נְשֹׂא] 89 (pm) וְנִשְׂאִי ¶

부정사 절대형 נְשֹׂא('옮기는 것')이 케니코트 사본 89에서는 본디 נִשְׂאִי로 되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III [יְנִשְׂאוּ] 150 (pm) יְנִשְׂאוּ | 89 (pm) > ¶

케니코트 사본 150에서는 יְנִשְׂאוּ('그것들이 옮겨지리라')에서 본디 끝 두 자모를 뒤바꾸어 썼고(יְנִשְׂאוּ), 사본 89에는 본디 이 낱말이 빠져 있다.

IV ¶ יְנִשְׂאוּ : וּ [יְנִשְׂאוּ]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복수형 동사 יְנִשְׂאוּ('그것들이 옮겨지리라')가 단수형 נִשְׂא('그가 옮겨지리라')로 되어 있다.

BHS 비평 장치에서는 יְנִשְׂאוּ를 여러 사본을 따라 יְנִשְׂאוּ로 고쳐 읽으라고 한다.

BHS의 5절 비평 장치에서는 맨먼저 וְלֹא יִדְבְּרוּ (오이발의 허수아비 같도다 그것들은! 그래서 그것들은 말하지 못한다')에 상응하는 부분이 칠십인역에서는 ἀργύριον τορευτὸν ἐστὶν οὐ πορεύσονται('그것은 다듬은 은이요 그것들은 가지 못하리라')라고 한 다음, 그 가운데 ἀργύριον 이 히브리 낱말 כֶּהָם의 번역일 수 있는지를 묻고, 복수 동사형

πορεύσονται가 칠십인역 루키아노스 교정본에서는 단수형 πορεύσεται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복수형은 아랍어의 뜻을 지니는 **יִדְבְּרוּ**가 아닌지도 묻는다.

뒤이어 칠십인역에서는 **יִדְבְּרוּ** 다음에 9절이 오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¹⁰⁰⁾ 4절 전반절 다음에 9절이 오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BHS 예레미야서 편집자인 루돌프의 생각이 사본상의 아무런 뒷받침 없이 기록되어 있다.

III ¶ תִּירָאוּ 93 (pm) תִּירָאוּ

אל-תִּירָאוּ(‘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에 들어 있는 정동사형 **תִּירָאוּ**가 케니코트 사본 93에는 본디 **תִּירָאוּ**로 되어 있었다.

IV ¶ תִּירָאוּ : ל-19 : תִּירָאוּ

복수형 동사 **תִּירָאוּ**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본디 단수형 **תִּירָא**로 되어 있었다.

IV ¶ מִהֵם : ל-19 : מִהֵם

אל-תִּירָאוּ מִהֵם(‘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에 들어 있는 **מִהֵם**(‘그것들을’)의 둘째 모음이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긴 모음으로 되어 있다.

IV ¶ כִּי : ל-18 20 : כִּי

5절에 두 번째 나오는 접속사 <כי>, 곧 **כִּי-לֹא יָדְעוּ**(‘그것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에 들어 있는 **כִּי**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9에서는 <메텍>이 붙은 꼴(**כִּי**)로 나온다.

IV ¶ יָדְעוּ : ל-23 : יָדְעוּ

כִּי-לֹא יָדְעוּ에 들어 있는 정동사형 **יָדְעוּ**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116에서는 본디 목적격 복수 남성 대명접미어가 붙은 꼴 **יָדְעוּם**(‘그것들은 그들을 알지’)로 되어 있었다.

100) 4절의 첫째 비평 장치에 들어 있는 항목 **יִיבְּרוּ**의 설명 맨 뒷 부분을 보라.

101) 5절에 접속사 <כי>가 두 번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음줄 없이, 그 다음에는 이음줄과 함께 나와서 두 경우가 서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올림말에서 굳이 작은 아라비아 숫자 1,2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음줄이 둘 다에 있지만 하나에는 <메텍>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메텍>이 없는 2절에서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

I וְגַם־הַיָּטִיב ἄγαθόν° ≈ ט ף

וְגַם־הַיָּטִיב(그리고 좋게 함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ἄγαθόν(‘좋은 것’)이 나오고, 불가타도 거의 이와 같다.

IV וְגַם־הַיָּטִיב [ל-23 ר שׁ : הַיָּטִיב ; ק : הַיָּטִיב ; פ : הַיָּטִיב ; ט ף

부정사형 וְגַם־הַיָּטִיב(‘좋게 함’)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116에서는 וְגַם־הַיָּטִיב로 되어 있고 샷순 사본에서는 본디 그러하였다. 그렇지만, 카이로 사본에서 이를 וְגַם־הַיָּטִיב로 고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는 마지막 모음을 <이>로 고친 וְגַם־הַיָּטִיב로 나온다.

III וְגַם 93 (pm) גַּם

וְגַם־הַיָּטִיב에 들어 있는 וְגַם(그리고 ...도)이 케니코트 사본 93에서는 본디 גַּם(...도)이었다.

IV אֹתָם : ר [אֹתָם

5절의 마지막 낱말 אֹתָם(‘그들에게’)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불완전표기된 וְאֹתָם로 나온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אֹתָם을 וְאֹתָם과 같은 뜻으로 본다.

5.2. 27장 1-7절

1절

IV (ט) : ר ל-19 [(פ) 1

9장24절과 10장1절 사이에 있는 열린 단락 표시 (פ)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닫힌 단락 표시 (ט)로 되어 있다.

I 1]ט >⁽¹⁾ ף

마소라 본문의 1절에 상응하는 부분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주(1)은

1 ⁽¹⁾Ch 27=34ט; v₂₋₆ = v₁₋₅ ט; v₈₋₁₂ = v₆₋₁₀ ט; v₁₄₋₂₀ = v₁₁₋₁₇ ט; v₂₂ =v₁₈ ט;
for reconstruction of *Vorlage* of whole ch, vid Tov, ZAW 91:73-93

이다. 곧, 마소라 본문의 27장이 칠십인역에서는 34장으로 나오고, 마소라 본문의 2-6절, 8-12절, 14-20절, 22절이 칠십인역에서는 각각 1-5절, 6-10

절, 11-17절, 18절로 되어 있으며, 1장 전체의 대본(臺本)을 재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ZAW 91권 73-93쪽에 실린 토브의 글을 보라고 한다.

마소라 본문의 1, 7, 13, 21절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언급한다. 1절의 경우 그 전체가 칠십인역 추정 원문(⚡*)에는 없다고 하는 식이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사본상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28장 1절을 참고하여 27장 1절의 첫 두 낱말 מְלֶכֶת מְלֶכֶת('...의 통치의 처음에')를 בשנת הרביעית('제4년에')로 고쳐 읽으라고 한다.

I מְלֶכֶת] α' ⚡_{var} βασιλέως⁽²⁾ ¶

מְלֶכֶת('...의 통치의')가 아퀼라역과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βασιλέως('...의 왕의')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2)는

⁽²⁾vid app 26₁

이다. 곧, 26장 1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찾아 보라는 것이다.

III 1 מְלֶכֶת] 96 מְלֶכֶת ¶

מְלֶכֶת가 케니코트 사본 96에는 מְלֶכֶת로 되어 있다.

I יהויקים] ⚡ דִּימְסַא⁽³⁾ ¶

יהויקים('여호야김의')이 시리아어역에는 דִּימְסַא('시드기야의')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주(3)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³⁾cf v_{3,12}

가 있다. 곧, 이를 3절 및 12절과 견주어 보라는 것이다. 3절과 12절에는 여호야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시드기야의 이름이 들어 있다.

IV יהויקים] נ' פ : יהויקים ; ר' ז : ... ; ל-19 ק מ : הו ¶

뉴욕 사본(본디 독법)과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는 יהויקים이 완전표기된 풀 יהויקים,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ז('시드기야')로 나오고,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카이로 사본에서는 יהויקים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역과 아랍어역을 따라, 또 3절과 12절을 고려하여 יהויקים을 לִצְדָקִיָּהו('시드기야의')로 고쳐 읽으라고 한다.

이 있다. 곧, <세데르 올람 랍바> 제24절 109쪽에는 אַלִּי가 없다는 것이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도 אַלִּי에 해당하는 부분이 칠십인역 추정 원본과 탈군 사본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II לָךְ > ¶

לָךְ(‘너를 위해’)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IV מוֹסְרוֹת [פ : מסרות ; מ : מו] ¶

מוֹסְרוֹת(‘사슬들’)의 첫째 장모음이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 불완전표기된 꼴 מסרות로 나오고,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מוֹסְרוֹת의 첫 자음 아래에 억양 기호 <메르카>가 붙어 있다.

III מוֹטָה [99 (pm) ומטות] ¶

מוֹטָה(‘그리고 명예들을’)이 케니코트 사본 89(고치기 전)에서는 그냥 ‘명예들을’(מוֹטָה)로 되어 있다.

IV מוֹטָה : ומוטות ¶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מוֹטָה이 완전표기된 꼴 ומוטות로 나온다.

I ונתתם > pron ¶

ונתתם(‘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들지라’)에서 인칭 대명 접미어 ‘그것들’에 상응하는 말이 칠십인역에는 없다.

II צוֹאֲרֵךְ [4QJer-c צו[ר]אך] ¶

쿰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편 사본 c에는 צוֹאֲרֵךְ(‘네 목’)이 צו[ר]אך로 되어 있다.

III צוֹאֲרֵךְ [93 150 (pm) צואריך] ¶

단수형 명사 צוֹאֲרֵךְ이 케니코트 사본 93과 150(고치기 전)에서는 복수형 명사 צואריך으로 되어 있다.

IV צואריך : צאורך ¶

צואריך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צאורך로 되어 있다.

I 3 וּשְׁלַחְתֶּם] \mathfrak{S}_{var} > pron ¶

וּשְׁלַחְתֶּם('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보낼지라')에서 인칭 대명 접미어 '그것들'에 상응하는 말이 칠십인역의 이독법에는 없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칠십인역 루키아노스 개정본을 참고하여 וּשְׁלַחְתֶּם을 וּשְׁלַחְתָּ('그리고 너는 보낼지라')로 읽으라고 한다.

IV מֶלֶךְ [³ נ ש : מֶלֶךְ] ¶

3절에 세 번째로 나오는 <멜렉>, 곧 מֶלֶךְ בְּנֵי עַמּוּם('암몬 자손의 왕')에 나오는 מֶלֶךְ의 첫째 자모와 셋째 자모 위에 있는 억양 기호 <파스타>가 뉴욕 사본과 샷순 사본에서는 마지막 자모 위에만 있다.

I בִּיד (] \mathfrak{S} num ¶

בִּיד('...의 손에')에서 단수형 명사 יָד('손')에 상응하는 말이 칠십인역에서는 복수형으로 나온다.

III 3 וְאֵל מֶלֶךְ מוֹאָב 150 (pm) > ¶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는 וְאֵל מֶלֶךְ מוֹאָב('그리고 모압 왕에게')가 없다.

III וְאֵל מֶלֶךְ צָרָה + 89 [צָר] ¶

케니코트 사본 89에서는 צָר('두로') 다음에 וְאֵל מֶלֶךְ צָר ('그리고 두로 왕에게')가 덧붙여 있어서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온다.

I מְלֹאכִים] \mathfrak{S} + αὐτῶν^o (\mathfrak{S}_{ar} αὐτοῦ)IIIIV ¶

מְלֹאכִים('사신들')에 상응하는 말 다음에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αὐτῶν('그들의')이,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αὐτοῦ('그의')가 덧붙여 있다. 이에 대해 셋째,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I מְלֹאכִים] 93 150 (pm) IIIIV ¶

IV : המלאכים; פ־מ"ק; "לא כת ה' וק"; ר-מ"ק; "לאקה"

מְלֹאכִים] פ ר

이 있다. 곧 מְלֹאכִים이 케니코트 사본 93과 150(고치기 전)과 페테르부르크 사본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관사가 붙은 꼴 המלאכים('그 사신들')로 되어 있고,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소 마소라에서는 '썩어진(<크티브>) 자모 ה 등으로 [곧 המלאכים으로] 읽지 말고 <크레>를 따라 읽으라'고 하

며, 로이힐린 사본의 소 마소라에서는 '<크레>를 따라 자모 ה 등으로 읽지 말라'고 한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칠십인역을 따라 מלֹאכִים('왕들')을 מלֹאכֵיהֶם('그들의 왕들')으로 고쳐 읽으라고 한다.

I הבאים] ⚭ + εις ἀπάντησιν αὐτῶν⁽¹⁾ ⚭ var αὐτω)

הבאים מלֹאכִים('오는 사신들의')에 나오는 הבאים('오는')에 상응하는 말 다음에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ἀπάντησιν αὐτῶν('그들을 맞으러')이 덧붙여 있고, 칠십인역 이독법에서는 그 가운데서 αὐτῶν 이 αὐτῶ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1)은

⁽¹⁾p לקראתמן

이다. 곧, εις ἀπάντησιν αὐτῶν/αὐτω는 아마 거꾸로 לקראתמן로 옮길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점은 BHS의 비평 장치에서도 언급한다.

IV יְרוּשָׁלַם] ש : ל ; מ : רן

삿순 사본에서는 יְרוּשָׁלַם¹⁰³('예루살렘')의 끝에서 둘째 자모 <라메드>의 모음이 짧아진 꼴로 나오고, 랍비 성서에서는 그 둘째 자모 <루> 아래에 <메택>이 있다.

4절

III וצויתה] 89 (sm) 93 וצויתה^{IV} ¶

וצויתה('그리고 너는 명령할지라')가 케니코트 사본 89(고친 뒤)와 93에서는 וצויתה로 되어 있다.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V וצויתה] ר : וצויתה ¶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וצויתה וצויתה로 되어 있다.

IV ¶ אתם] פ ר : אותם ¶

102) 이 올림말의 끝에서 둘째 자음 <라메드> 아래에 있는 짧은 모음을, 위 본문에 적힌 대로 긴 모음으로 고쳐 써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HUBJr 편집자가 알렙포 코텍스에서 명백히 잘못된 모음 표기를 아예 바로 잡아서 본문에 적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위 3.2.1.6을 보라).

103) 바로 앞 주를 보라.

אתם(그들을)이 페테르부르크 사본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완전표기된 꼴 ׀אותם로 나온다.

I 4 לאמר ~ אל ארניהם¹⁰⁴] ׀ ut ... loquantur^o ≈ S ~ ׀

마소라 본문의 역양 기호를 따르면 אל-ארניהם('... 그들의 주들에게')을 그 앞의 낱말 וצוית אתם(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명령할지라)와 이어 읽고, 그 다음 낱말 לאמר('말할 것을')와는 끊어 읽게 되어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불가타에서는 ut ... loquantur('그들이 말하도록 ...')이 나오면서 그 앞에서 끊어 읽게 하고 있어서 אל-ארניהם('... 그들의 주들에게')에 상응하는 부분(ad dominos suos)이 ut로 시작하는 절 안에 들어가고, 시리아어역에서도 이와 거의 같게 낱말의 순서가 달라져 있다.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לאמר(전치사 붙은 동사 <아마르>의 부정사 연계형)가 본 동사 צוית('너는 명령할지라')의 목적 보어 역할을 하는 반면, 불가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말로 loquantur('그들이 말하다')라는 정동사를 부분장의 주동사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그들이 자기들의 주(主)들에게 말할 것을 명하라'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순 문장이, 불가타에서는 '너는 그들에게 그들이 자기들의 주들에게 말하도록 명령하라'라는 복합 문장으로 된 것이다.

IV ׀ ל ק מ : ה [ארניהם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ארניהם('그들의 주들')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V ׀ < : ר [לאמר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לאמר가 없다.

IV ׀ ל נ ק מ : פ [כה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כה אמר יהוה ('이처럼 야훼께서 말씀하셨도다')에 나오는 כה 아래에 <메텍>이 있다.

III 'ה] 89 (pm) ׀

케니코트 사본 89(고치기 전)에는 יהוה('야훼')가 없었다.

104) 올림말을 위 본문에 적힌 것에 맞추려면, אל-ארניהם으로 써야 한다.

I צבאות]ט >

צבאות('만군의')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III אלהי ישראל] 93 > ¶

אלהי ישראל('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케니코트 사본 93에는 없다.

III תאמרו] 30 89 93 96 150 (pm) תאמרון_{IV}

תאמרו('너희는 말할지라')가 케니코트 사본 30,89,93,96, 150(고치기 전)에서는 תאמרון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V תאמרו] פ' ר : תאמרון; ל? נ מ : ת ¶

תאמרו가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본디 독법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תאמרון으로 되어 있고, 뉴욕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תאמרו의 첫 자음 아래에 <메텍>이 있는데, 레닌그라드 코텍스 B19a에도 <메텍>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IV אנניכם] ל ק מ : ה ¶

레닌그라드 코텍스 B19a와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אנניכם('너희의 주들')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5절

IV ¶ < : ש 5

5절의 첫 줄 왼쪽 여백에 있는 읽기 단락 표시 ם(<세데르>)가 샷순 사본에는 빠져 있다.

I 5 אנכי]ט pr öti° ¶

이미 정동사 עשיתי 어미에서 알 수 있는 주어 '나'를 강조하여 따로 표현하는 인칭 대명사 אנכי 에 상응하는 말 앞에, 지글러의 칠십인역에서는 접속사 öti가 덧붙여 있다.

IV אנכי] נ ק מ : א ¶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אנכי의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II 5 [הארץ¹] 30 (pm) ארץ ¶

5절의 첫 הארץ('그 땅'), 곧 עשיתי את־האץ('내가 그 땅을 만들었다')에 나오는 ארץ가 케니코트 사본 30(고치기 전)에서는 관사 없는 ארץ('땅')으로 되어 있다.

I 2 [את² - הארץ²] > ¶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마소라 본문 5절의 둘째 את부터 마찬가지로 둘째 ארץ까지, 곧 אֶת־הָאָדָם וְאֶת־הַבְּהֵמָה אֲשֶׁר־עַל־פְּנֵי הָאָרֶץ('땅의 얼굴 위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짐승')에 상응하는 부분이 없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도 이 부분이 칠십인역 추정 원본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유사문미(類似文尾)(여기서는 אר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I 2 [את²] var VS ① III ¶

칠십인역의 이독법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에서는 6절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את, 곧 אֶת־הָאָדָם('그 사람')의 את 앞에 접속사 ו에 상응하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셋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I 2 [את²] 89 93 ואת ¶

가 있다. 곧, 케니코트 사본 89와 93에서는 접속사가 붙은 ואת이 나온다는 것이다.

IV [האדם] נ ק מ : ה ¶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האדם('그 사람')의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II [אשר] 96 + עשיתי (non voc) ¶

케니코트 사본 96에서는 관계사 אשר 다음에 עשיתי('내가 만들었다')를 모음 기호 없이 덧붙임으로써, 전치사구를 술어로 하는 관계문 אֶת־פְּנֵי הָאָרֶץ אֲשֶׁר עַל־פְּנֵי הָאָרֶץ('그 땅의 얼굴 위에 있는')가, 동사를 술어로 하는 관계문 אֲשֶׁר עָשִׂיתִי עַל־פְּנֵי הָאָרֶץ('그 땅의 얼굴 위에 내가 만든')으로 달라졌다.

III [עלפני¹⁰⁵] 93 (pm) > ¶

על־פני(...의 얼굴 위에')가 케니코트 사본 93(고치기 전)에는 없다.

IV פני [פ : + כל ¶

페테르부르크 사본에는 פני('...얼굴')에 כל('모든')이 덧붙여 있다.

IV הארץ² [ר : הארמה ¶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5절에 두 번째로 나오는 הארץ 곧 על-פני הארץ('땅의 얼굴 위에')에 들어 있는 הארץ가 הארמה 되어 있다.

III בכחו [150 (pm) בכחי ¶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는 בכחו('그의 힘으로')가 בכחי('내 힘으로')로 되어 있다.

IV ובזרעי [ר : ובזרעי ¶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불완전하게 표기된 ובזרעי로 나온다.

IV לאשר [ל-19 נ מ : ל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뉴욕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אשר בעיני ('내 눈에 바른 자에게')의 첫머리 낱말 לאשר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II יישר [150 (pm) ישר ¶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서는 ישר('그가 바르다')가 יישר('그가 바를 것이다')로 되어 있다.

6절

I ועתה [6 >_{II}⁽¹⁾ ¶

ועתה('그리고 이제')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는데, 이에 대해 둘째 비평 장치와 주(1)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 ועתה [6 SOR ib > ¶

6⁽¹⁾vid app 40₄, 42₁₅

가 있다. 곧, <세데르 올람 랍마> 가운데서 둘째 비평 장치 앞 항목(2절

105) 올림말을 위 본문에 적힌 것에 맞추려면, על-פני로 써야 한다.

의 [אלי]에서 이미 인용한 곳인 제24절 109쪽에서는 이 낱말이 빠져 있고, 40장 4절과 42장 15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찾아 보라는 것이다. 그 두 구절에서도 문장 첫머리의 ועתה('그리고 이제')에 해당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I [אנכי נתתי] ἔδωκα^o ¶

이미 정동사 נתתי('내가 주었다')에서 알 수 있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쓰인 일인칭 단수 대명사 אנכי('나')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고, 그냥 정동사(ἔδωκα)만 나온다.

I [אנכי] אה⁽²⁾ ¶

אנכי가 탈군의 이독법에서는 אה('보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2)는

⁽²⁾cf 40₄

이다. 곧 40장 4절과 견주어 보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ועתה와 정동사 사이에 אה('보라')가 들어 있다.

II [אנכי] וואני ¶

אנכי가, 둘째 비평 장치의 앞 항목에서 인용한 곳(ועתה] SOR ib >를 가리키는데, 이는 다시 2절의 항목 [אלי]으로 거슬러 올라 감)인 <세테르 올람 랍바> 제24절 109쪽에서는 וואני('그리고 내가')로 되어 있다.

IV [אנכי] ל-19 ש : א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אנכי의 첫 자모 아래 <메텍>이 없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6절의 첫 두 낱말인 ועתה אנכי에 대해서 그것이 칠십인역 추정 원본에는 없다는 식으로만 언급한다.

I [כל-האלה] τὴν γῆν⁽³⁾ (ἔ var + ταῦτην) ¶

כל-הארצות האלה('이 모든 땅들')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τὴν γῆν('그 땅')이 나오고,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거기에 지시형용사 ταῦτην('이')가 덧붙어서 '이 땅'으로 되어 있는데, τὴν γῆν에 대한 주(3)은

⁽³⁾p הארץ, cf v₅; but p exeg, vid app 23₃

이다. 곧 5절을 참고해 볼 때 τὴν γῆν은 아마 הארץ의 번역인 듯하지만, 이는 주석에 근거한 변화일 수도 있다 하면서 23장 3절의 비평 장치에

서 관련 항목을 찾아 보라고 한것이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אַת־כָּל־הָאֲרָצוֹת הָאֵלֶּה가 칠십인역 추정 원본에서는 τῆν γῆν으로 되어 있다고만 언급한다.

III כל 6 89 (pm) > ¶

כל('모든')이 케니코트 사본 89(고치기 전)에는 없다.

II האל] ib האלה ¶

지시형용사 האלה ('이')가, 둘째 비평 장치의 앞 항목에서 인용한 곳(곧 אַנְכִי ib וְאֵנִי를 가리키는데, 이는 다시 그 앞 항목인 וְעַתָּה]을 거쳐 2절의 항목 אֱלֹהֵי]까지 거슬러 올라 감)인 <세데르 올람 랍바> 제24절 109쪽에 서는 האל로 되어 있다.

IV הארצות] נ ק מ : ה ¶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הארצות('그 땅들')의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 טבֿיד τῶ; ° טבֿיד ¶

טבֿיד('의 손에')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τῶ ('에게')가, 시리아어역에는 טבֿיד('섬기도록')이 나온다.

I נבוכדנאצר] ט_{var} > ¶

נבוכדנאצר('느부갓네살')에 상응하는 이름이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없다.

III נבוכדנצר 89 93 96 | G-B Eb 22 נבוכדנצר | נבוכד נצר 150 (pm) ¶

נבוכדנצר(<느부카드내차르>)를 케니코트 사본 89와 93과 96에서는 נבוכד נצר(<느부카드 내차르>)의 두 낱말로 띄어 썼고, 바벨로니아 모음 체계로 된 게니자 단편 사본 Eb 22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자모 א 없이 נבוכדנצר로, 케니코트 사본 30에서는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누어 נבוכד נצר,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서는 נבוכד נצר(<느부카드내차르>)로 썼다. 이에 대해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V נ פ : נבוכדנאצר ; נ ק מ : בו ; נ - מ"ק : "ן נאצר ק" ¶
נבוכדנאצר] : ר : נבוכד-נצר

가 있다. 곧, נבוכדנאצר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נבוכד-נצר으로, 뉴욕 사본과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는 נבוכדנאצר로 되어 있고,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נבוכדנאצר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

이 있으며, 뉴욕 사본의 소 마소라에서는 '<느부카드 내차르>로 읽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I מלך־בבל¹⁰⁶] ⚡_{var} > ¶

מלך־בבל('바벨론 왕')이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빠져 있다.

IV ¶ ל נ ק ש מ : מַּ [מלך־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샷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מלך־(...의 왕)의 첫 자음 아래에 <메텍>이 있다.

I [עברי] ⚡ δουλεύειν αὐτῷ⁽⁴⁾ ⚡ + מַלְאָכִי⁽⁵⁾ ¶

[עברי]('내 종')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는 δουλεύειν αὐτῷ ('그를 섬기도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셋째 비평 장치과 주(4)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I [עברי] 96 >

⁽⁴⁾p לעברו (cf 28₁₄), p hapl/ditt; vid app 25₉, 43₁₀ (in all three vv Nebuchadnezzar is not named 'my servant' in ⚡); vid Janzen, 54s; Tov, ZAW 91:83s; Schenker, "Nebukadnezzar"

이 있다. 곧, [עברי]가 케니코트 사본 96에는 없으며, 28장 14절을 참고하면 δουλεύειν αὐτῷ는 아마 לעברו로 거꾸로 옮길 수 있겠고, 달리는 아마 비슷한 낱말을 하나 빼먹었거나(중자탈락[重字脫落, haplography) 같은 것을 두 번 썼으리라(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는 것이다.¹⁰⁷) 또 25장 9절과 43장 10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보라고 하면서 이 세 경우 모두 칠십인역에서는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참고 문헌으로는 J.G.Janzen, *Studies in the Text of Jeremiah* (Harvard Semitic Monographs 6; Cambridge, MA: Harvard Univ.Press, 1973), 54-55쪽과 ZAW 91권에 실린 토브의 글 가운데서 83-84쪽과 A.Schenker, "Nebukadnezzars Metamorphose vom Unterjocher zum Gottesknecht - Das Bild Nebukadnezzars und einige mit ihm zusammenhängende Unterschiede in den beiden Jeremia-Rezensionen," RB 89 (1982), 489-527쪽을 보라고 한다.

106) 이 경우도 올림말을 위 본문에 적힌 것에 맞추려면, מלך־בבל로 써야 한다.

107) haplography와 dittography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E.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Minneapolis: Fortress Press ;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2), 237쪽을 보라.

더 나아가서 시리아어역에서는 **עברי**에 상응하는 말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가 덧붙여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이에 대한 주(5)는

⁽⁵⁾dupl, cf **ט**

이다. 곧, 이는 중복된 것이고 칠십인역과 견주어보라고 한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칠십인역 추정 원문의 $\delta\omicron\upsilon\lambda\epsilon\upsilon\epsilon\iota\nu\ \alpha\upsilon\tau\tilde{\omega}=\text{עברי}$ 칠십인역 시내 산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

II **אגם**] Yal II § 968 **וכל** ¶

אגם('그리고 또 그들의 짐승')의 첫 두 낱말 **אגם**가 <알쿠트 쉬모니> 제2권 986절에는 **וכל**('그리고 모든')로 되어 있다.

II ²**את**] bShab 150a sv 1ms, Yal II §211, §1063> ¶

6절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את**, 곧 **אגם**에 들어 있는 **את**가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삼바트>편 150쪽 a란 손치노 판(s)과 베니스 판(z)과 또 다른 한 사본, 또 <알쿠트 쉬모니> 제2권 211절과 1063절에는 없다.

I **נתח**] **ט** num ¶

단수형 명사 **נתח**('...의 짐승')가 칠십인역과 불가타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다.

I **נתתי לו**] **ט** > ¶

נתתי לו('내가 그에게 주었노라')에 상응하는 부분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I **לו**] **θ**_{II} ¶

לו('그에게')에 상응하는 말이 테오도시안역에는 빠져 있다. 둘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 **לו**] Yal I § 269, II § 968 > ¶

가 있다. 곧 **לו**가 <알쿠트 쉬모니> 제1권 269절과 제2권 968절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I **לעברו**] var >⁽⁶⁾ ¶

לעברו('그를 섬기도록')에 상응하는 부분이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주(6)은

⁽⁶⁾vid preced (4); cf 28₁₄

이다. 앞의 주(4)에서 다른 비슷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또 28장 14

절과 견주어 보라는 것이다.

IV ¶ לעבדו] ר' : לעבדו ¶

לעבדו이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לעבדו('그를 섬기는 자로')로 되어 있다.

7절

I ¶ 7] ט' >⁽¹⁾ ¶

7절에 상응하는 부분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주(1)은⁽¹⁾vid Janzen, 101s

이다. 곧, 앞서 소개한 Janzen의 책, 101-102쪽을 보라는 것이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7절이 칠십인경 추정 원본에 없다고만 한다.

IV ¶ ועבדו] נ ק מ : ע ¶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ועבדו('그리고 그들이 섬기리라')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V ¶ אתו] ר : אתו ¶

אתו('그를')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완전표기된 풀 אתו로 나온다.

IV ¶ כל־הגוים] ק : כל־הגוים ¶

카이로 사본에는 כל־הגוים('모든 민족들')의 셋째 자모 위에 억양 기호 <아즐라>(또는 <카드마>)가 더 붙어 있다.

I ¶ כל] ט > ¶

כל ('모든')에 상응하는 말이 시리아어역에는 없다.

III ¶ את] 30 (pm) 7 108] ואת ¶

7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ואת, 곧 ואת־בנו('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첫 낱말 ואת가 케니코트 사본 30(고치기 전)에서는 접속사 없는 풀 ואת로 되어

108) 7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ואת는 두 번째 나오는 ואת와는 달리 <메텍>이 없으므로, 둘은 구별된다. 따라서 올림말에서 굳이 작은 아라비아 숫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있다.

IV ¶ א : ש מ [²-ואת¹⁰⁹]

샷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곧 וְאֵת־בְּנֵי־בְנוֹ(‘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의 첫 낱말 וְאֵת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없다.

III ער] 150 (pm) + ער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서는 ער(‘...까지’)가 한 번 더 나온다.

II 7 בא עת] WaR § 21:7 (483) mss * פט , Yal I § 571 ~ ¶

<와이이크라 랍바>¹¹⁰ 제21장 7절(483쪽) ט 사본 및 פ 사본과 <알쿠트 쉬프오니> 제1권 571절에서는 בא עת(‘때가 왔다’)의 낱말 순서가 다르다.

IV בא : פ [בא-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는 בא- 완전표기된 풀 בוא로 나온다.

II עת] WaR ib ms ל > ¶

עת(‘때’)가 <와이이크라 랍바> 가운데서 둘째 비평 장치 앞 항목(בא עת)과 같은 곳, 곧 제21장 7절(483쪽) ל 사본에는 없다.

I ארצו] Θ_{var} της ὀργῆς αὐτοῦ⁽²⁾ ¶

ארצו(‘그의 땅’)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데오도시안역과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της ὀργῆς αὐτοῦ(‘그의 진노의’)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주(2)는

⁽²⁰⁾cf 51(28)₁₁Θ; p inner-Θ ὀργῆς ← γῆς

이다. 곧 이를 51장(칠십인역에서는 28장) 11절 칠십인역과 견주어 보라고 하고, 아마도 칠십인역 전통 안에서 생긴 변화로 ὀργῆς(‘진노’)는 γῆς(‘땅’)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것이다.

I אגם הוא] Θ_{var} > ¶

אגם הוא(‘그도’)에 상응하는 부분이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없다.

I (עברו)] Θ_{var} ט > ¶

109) 앞의 주와 마찬가지로이다.

110) 400-500년에 편집된 것으로 알려진 레위기 강해집(앞의 주77에서 이끌어 쓴 Strack/ Stemberger의 책, 267-269쪽).

וַעֲבָדוּ(‘그리고 그들이 섬기리라’)의 첫머리 접속사에 상응하는 말이 불가타의 이독법과 탈군에 빠져 있다.

I בו] ׀ Ⓢ_{var} Ⓢ prep ¶

וַעֲבָדוּ גֹוִים רַבִּים(‘그리고 숭한 민족들이 그를 부리리라’)에 들어 있는 בו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말이 데오도시아역과 칠십인역의 이독법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에서 달라진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전치사 목적어를 여성을 바꾸어 הָ로 읽기를 제안한다.

IV ¶ גְּדֹלִים :א: גְּדֹלִים

וְגְדֹלִים וְגְדֹלִים(‘그리고 큰 왕들’)에 들어 있는 גְּדֹלִים(‘큰’)이 알렙포 사본의 본디 독법은 완전표기된 꼴인 גְּדֹלִים이었다.

6. HUBJr 비평 장치의 장단점

앞에서 10장1-5절과 27장 1-7절의 비평 장치의 내용을 알아본 것을 중심으로 HUBJr의 장점과 문제점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6.1. HUBJr 비평 장치의 장점

6.1.1. 양적으로 풍부한 자료 제시

(1) BHK나 BHS와는 달리 HUB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전달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그 비평란에 엄청나게 많이 실고 있다. BHK와 BHS에서는 일단 각쪽의 대부분을 본문이 차지하고 비평 장치는 그야말로 아래에 참고 자료처럼 덧붙여 있었다면, HUB에서는 적어도 각쪽의 반 이상이 비평 장치와 해설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인쇄본의 판 크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견주어 보아도 HUBJr의 부피가 BHK나 BHS의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더 클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BHK와 BHS에서는 대강 두 쪽에 걸쳐 실린 10장이 HUB에서는 5쪽 정도에 걸쳐 나오고, BHK와 BHS에서는 두 쪽도 채 안 되는 27

장이 HUB에서는 6쪽이나 된다.

(2) 10장1-5절의 경우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겨우 8 항목만 다루는 데 비해서, HUB의 비평 장치에서는 무려 61항목(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에서 각각 21개, 4개, 9개, 27개 항목)을 다루고 있고, 첫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15 가지에 대해 해설란에서 풀이하고 있다. 결국 다섯 절에 대한 비평 장치 또는 해설이 모두 76가지이니 한 절에 평균 14 가지가 넘는다.

(3) 27장 1-7절의 경우에는 BHS의 비평 장치에 13항목 밖에 없는 반면에, HUB의 비평 장치에는 102항목(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에서 각각 33개, 10개, 22개, 37개 항목)이나 들어 있고, 첫째 비평 장치에 대한 각주도 12개나 있다. 결국 일곱 절에 대한 비평 장치 또는 해설이 모두 114가지이니, 한 절에 평균 16가지가 넘는다.

6.1.2. 내용이 풍부한 자료 제시

이처럼 본문에 관해 제시된 자료의 분량이 매우 큰 만큼, HUB의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히브리어 성경 편집본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 이는 우선 첫째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 이미 앞서 기호 목록과 줄인말 목록에서 볼 수 있었듯이, 번역본과 마소라 본문의 차이를 문법적으로나 번역 기술상의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여 종전보다는 매우 자세하게 구별하여 다룬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를테면 10장 4절에 나오는 낱말 וְיָדָע 의 경우에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탈군과 수리아의 독법을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HUB의 첫째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는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문장 구조와 칠십인역의 헬라이어 문장 구조의 차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시리아역과 탈군의 독법의 주석적인 성격까지 설명하고 있다. 5절의 경우에도 BHS의 비평 장치에서 보다 훨씬 다각적으로 번역본들의 이독법을 다루고 있다.

(2) BHK와 BHS에서 다루지 못했던 쿨란 여러 사본의 이독법들과 랍비 문헌에서 뽑을 수 있는 이독법의 경우도 그러하다.

(3) 더 나아가서 철자법과 모음 기호와 억양 기호의 차이를 다루는 넷째 비평 장치에서는 마소라 전통 및 그 전통에 가까운 중요 사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단락, 닫힌 단락 표시의 차이, <세데르> 표시의 차이(보기 27:5)까지 다루고 있어서, 이를 테면 BHK와 BHS의 대본인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렘포 사본의 차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심지어는 여러 사본의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까지 인용하기도 한다.

6.1.3. 조심스런 의견 제시

(1)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제시하면서도 HUB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이 뚜렷이 드러난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 흔히 라틴어 자모 l(=legendum)로 표시하는 히브리어 본문 수정 제안을 10장 1-5절에서 세 번, 27장 1-7절에서 네 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1개의 항목 가운데 삼분의 일이 그런 제안의 성격을 띠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사본상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도 두 번이나 된다(10:2,4). 또 사본상의 뒷받침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효력은 별로 크지 않고, 주로 문맥이나 문법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 이른바 문헌비평적인 관점에서 - 본문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렇지만, HUB에서는 '이렇게 읽으라'라는 지시를 아예 하지 않고, 그 네 비평 장치에서는 기술적이거나 실질적인 이독법을 그냥 제시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설란에서 또한 제시할 따름이다. BHS와 HUB의 이런 대조적인 태도는 27장 3절에 나오는 항목 מִלֵּאכִים 이나 5절에 나오는 항목 הַאֲרֵץ - אֶתֶּן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이리하여, 독자는 HUBJr 편집자의 자료 제시 방식이나 의견에 구애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본문에 대해 이전의 어느 편집본 히브리어 성서로 연구할 때보다 훨씬 더 넓은 밑바탕 위에서 입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 글에서 우리는 HUBJr의 비평 장치와 해설란의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배열하여 살펴 본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HUB의 비평 장치와 해설란은 단순한 자료 모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은 논문집의 성격까지 띤다. 그에 어울리게 아래 해설란에서는 해당 문제의 이해에 중요한 문헌도 더러 소개하는데, 이것도 BHK나 BHS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6.1.4.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 드러나는 10장과 27장의 특성

앞에서 10장과 27장, 두 장 전체의 비평 장치와 해설란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각각 그 앞 부분만 보더라도, 이 두 장의 마소라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 10장의 경우에는 마소라 본문보다 칠십인역에 더 가까운 콤란 사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특히 칠십인역과 4QJer-b에는 5-9절이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순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5절의 주(4)가 BHS의 비평 장치에서보다 더 확실히 알려 준다.

(2) 27장의 경우에는 칠십인역이 마소라 본문보다 매우 짧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첫째 비평 장치의 첫 항목이 이 사실을 개괄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절수만 두고 말하더라도, 27장 전체 22절 가운데 4절이나 칠십인역에는 없다.

이리하여 HUBJr의 독자는 마소라 전통과 칠십인역의 대본이었을 히브리어 본문의 전통과 콤란 전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지니게 된다.

6.2. HUBJr 비평 장치의 문제점

앞에서 말한 HUBJr 비평 장치의 장점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바로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이제 HUBJr 비평 장치의 문제점을 원칙적인 문제점과 기술적인 문제점의 둘로 나누어 간추려 보기로 하자.

6.2.1. 원칙적인 문제점

(1) 마소라 본문보다 그 본문에 대한 자료가 더 많고, 그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전문성을 띠는 것이고 보니, 실제 이 좋은 자료들을 제대로 다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특히 둘째 비평 장치의 수록된 랍비 문헌 인용은 유대교 문헌에 대한 개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 쓸모가 없다. 이리하여, 소수의 전문가들을 빼면, HUB에 접근할 용기를 낼 사람이 매우 드물 것이다. 이런 점에서 HUB 편집자들도 인정하는 대로¹¹¹⁾ HUB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 대해 쉽고도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별도의 해설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 BHK에서 편집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료의 중요성이 덜하고

111) HubJR xiii쪽의 번호 21.

더하는 정도에 따라 비평 장치를 둘로 나누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BHS에서 하나로 통합했던 비평 장치를 HUB에서 다시 넷으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자료를 종류별로 보는 데는 좋으나 마소라 본문의 한 부분에 여러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낱낱이 찾아 한데 묶어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보기로서는, HUB_{Jr} 안내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접속사 <와우>의 추가 또는 삭제의 문제에 관련된 자료가 자료의 성질에 따라 첫째, 둘째, 셋째 비평 장치로 흩어져 기록되는 것을 들 수 있다.¹¹²⁾ 27장 5절의 첫째, 셋째 비평란에 תא에 관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그런 경우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셋째, 넷째 비평 장치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보일 때도 있다. 10장 5절의 ולא, 27장 4절의 וצוית, 27장 6절의 נבוכדנאצר 항목이 그런 보기이다.

(3) 첫째, 둘째, 셋째 비평 장치의 항목을 그 아래 비평 장치에서도 다룰 때, 그것들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만 아래 비평 장치를 보라는 표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항목이 아래 비평 장치에 있다는 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10장 2절의 둘째와 셋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항목 וְנָ와 둘째와 넷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항목 וּמֵאָהוּת가 그러하다.

(4) 쿵란 사본 자료는 차라리 첫째 비평 장치에 넣었더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예레미야서의 경우 칠십인역과 쿵란 사본의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5) 넷째 비평 장치에서는 단순히 철자법, 모음, 억양의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이상의 뜻을 지니는 이독법도 나온다. 10장 1절의 항목 רָבָב와 5절의 항목 וַיִּדְעוּ와 27장 5절의 항목 פָּנִי가 그런 보기이다. 이 점에서 HUB_{Is}에 견주어 볼 때,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법은 셋째 비평 장치에 두기로 한 원칙을 HUB_{Jr}에서는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6.2.2. 기술상의 문제점

(1) 너무 세분해서 비평 장치를 만들다 보니 일관성이 조금 모자라서 올림말 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틀린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러

112) xvi쪽의 번호 33.

있다. 특히 올림말을 적을 때 같은 히브리 자음으로 구성된 낱말이 한 절에 여러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모음이나 억양 기호나 이음줄 같은 것으로 서로 구별이 되어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위 첨자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¹¹³⁾ 그리하기도 한다. 우선 위에서 해설한 부분에서만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눈에 띈다.

- 10장 2절 둘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אַל־דָּרַךְ를 אַל־דָּרַךְ로

- 10장 5절 첫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וְלֹא(ו)는 וְלֹא(ו)로

- 27장 4절 첫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가운데

אַל־אֲדֹנֵיהֶם은 אֲדֹנֵיהֶם로

- 27장 5절 셋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עַל־פְּנֵי는 עַל־פְּנֵי로

- 27장 6절 첫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מִלֶּךְ־בָּבֶל은 מִלֶּךְ־בָּבֶל로

- 27장 7절 셋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וְאֵת¹는 וְאֵת로 고쳐 써야 할 것이고, 27장 6절 넷째 비평 장치의 נְבוּכַדְנֶאצַּר 항목 맨 끝에 뉴욕 사본의 소 마소라 인용에서 자모 <코프> 위에 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빠져 있다.

(2) 중요한 줄인말이나 기호에 대한 설명이 더러 각주에 나오는데, 이는 본문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각주 22(시리아어 헥사플라에서 인용하는 증거 본문의 표시 방법), 31(괄호와 느낌표와 물음표의 쓰임새), 38(<야훼>를 가리키는 ׀), 96(§가 뜻하는 바), 111(다른 사본의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 인용 기호), 112(벤 아쉐르 전통과 벤 납달리 전통의 차이 표시 방법) 등이 그런 경우이다.

(3) 전례 없이 방대한 자료를 비평란에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해당 문헌을 직접 들추어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그 좋은 보기로서 27장 4절의 첫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항목, לֹא־אָמַר אֲדֹנֵיהֶם] ׀ ut ... loquantur^o ≈ S~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차라리 לֹא־אָמַר אֲדֹנֵיהֶם] ׀ ut ad dominos suos loquantur^o ≈ S~ 이라고 표시했더라면 더 나을 것이다.

(4) 비평 장치나 해설란에 쓰이는 기호나 줄인말에 대한 풀이를 안내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로 다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상식적으로 그 가리키는 바를 알아차릴 수 있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안내문의 기호 목록이나 줄인말 목록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흔히 쓰이는 라틴어 또는 영어 줄인말이지만 그에 대한 해설이 없는

113) 그 대표적인 표기가 10장3절에 두 번 나오는 <כי>(כִּי)이다.

경우. 이를테면, 27장 6절의 둘째 비평 장치 항목 **הועתה**에 들어 있는 **ibi**(=ibidem)과 10장 2절의 둘째 비평 장치 항목 **ומאתות**에 나오는 **sem**(=semel)과 10장 3절의 해설란 주(4)에서 볼 수 있는 **lexic diffic** 같은 것이다.

- 쿵란 사본을 인용할 때 추정 부분을 가리키는 []. 10장 4절의 둘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항목 **במסמרות וכמקבות**에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

- 둘째 비평 장치에서 제시하는 랍비 문헌의 사본에 대한 약자. 이를테면, 27장 7절의 항목 **עבא עת**에 보면 나오는 **טפ**와 항목 **עת**에서 **ל**이 어떤 사본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안내문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 넷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줄인말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다.

넷째 비평 장치에서 더러 다른 마소라 코텍스에 적힌 소 마소라나 대 마소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수가 있는데(10장 2절의 항목 **כה**과 27장 3절의 항목 **מלאכים**에서처럼), 그럴 경우 아람어 줄인말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HUB에서는 BHK나 BHS와는 달리 아람어와 아람어 줄인말 목록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 27장 6절의 항목 **נבוכדנאצר** 맨 끝에 뉴욕 사본의 소 마소라 인용에서 자모 <눈>을 마침꼴로 쓰고 그 위에 점 찍은 것은 그것이 **נבוכד**의 줄인말인 것을 뜻하고, 또 27장 3절 넷째 비평 장치 항목 **מלאכים** 가운데서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소 마소라 인용에 나오는 'ה는 그 앞에 나오는 **המלאכים**을 줄여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도 없다.

(5)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참고 비교 구절이 빠진 경우도 더러 있다. 이를테면 10장 2절의 둘째 비평 장치 항목 **אל-דרך**과 첫째 비평 장치 항목 **דרך**을 BHS와 견주어 보라.

7. 나가는 말

비록 아직까지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HUB의 출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서를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토대 위에서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일차 번역본들의 이독법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중하게 하려는 HUB 편집자의 진지한 태도와, 우리가 좀처럼 직접 접하기 힘든 쿵란 사본을 비롯한 최근의 옛 히브리어 사본과 랍비 문헌에서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찾아 잘 정리하여 제시해 준 점은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런 좋은 자료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어 성서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는 데에서 이런 비평판 성서 편집의 목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